

龍仁文化

1986. 9.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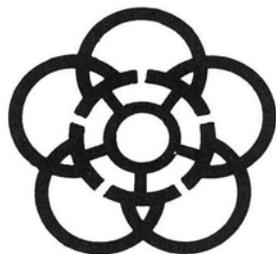
第 8 號



龍仁文化院

龍仁文化

1986. 9. 30
第 8 號



龍仁文化院

군 민 헌 장

우리 용인군은 산자수명하고 풍요한 고장으로 힘찬 전진의 기상과 참신한 기풍을 조성하여 비약적으로 무궁하게 발전하는 군입니다.

유서깊고 그윽한 고적과 동방의 정기어린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충혈사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슬기로운 예지와 고매한 덕을 쌓아 튼튼한 몸으로 우리 고장을 계발하고 가꾸어 나감이 우리들 군민의 자랑입니다.

용인의 수려한 자연속에 평화롭고 오붓하게 잘 사는 복지 사회를 우리들의 손으로 이룩해 가기 위하여 마련한 이 헌장을 다 함께 한결같이 힘써 지켜 나갑시다.

1. 서로 존경하고 협동하는 군민이 됩시다.
2. 화목한 가정, 정다운 마을, 명랑한 환경을 이룩해 갑시다.
3. 온 군민이 한 가족처럼 온 군민이 한 집안처럼 믿음있게 살아 갑시다.
4. 자기들의 소질과 능률을 계발하는 한편 알차게, 보람찬 내일을 위해 전진합시다.

❧ 차 레 ❧

머릿말	문화원장 김정근	5
靑少年 指導問題를 생각해 본다	鄭弼永	7
용구문단 <수필> 내고향 9월은	이 향 이	10
<詩> 神은 별을 키워야 했다	노 영 미	12
가을 素描	박 상 돈	13
새	朴 峻 奎	14
꽃의 인사	이 길 호	15
눈 뜨는 삶	김 학 민	16
 <용인군 저축글짓기 공모>		
초등부 최우수작	맹그랑 맹그랑...기흥국교 4의2 이 정 희	17
중고등부 최우수작 ... 희망의 통장	백암고 1년 백 승 각	19
 <용인새마을문고 주최 제1회 우수독후감 모집>		
최우수 당선작	양지국교 새마을어머니회 손 영 숙	22
꽃 꽃 이	오 민 근	25
학교순례 원삼중학교		26
特 輯 言論界의 先覺者 石農 柳瑾(下)	朴 鏞 益	27
負兒山과 沸流, 그리고 三角點	李 鎭 昊	33
韓國의 理想의인 선비 十淸軒 金世弼 先生	崔 熙 冕	37
<假說> 龍仁은 初期百濟의 古邑이다	李 仁 寧	41
옛 문헌속의 용인(6) 양벽정(漾碧亭)에서	洪 順 錫	56
용인금석유문자료 (3) 남곡기(南谷記)	洪 順 錫	58
사발통문	編 輯 室	61
表紙說明		65
편집후기		66

머릿말

용인문화원장 김 정 근

기억은 할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은 기사를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다.
어느 어머니가 남학생을 두었는데 자기 아들이 곧잘 주위에 있는 다른 학생들을 두들겨주며 괴롭히는 일이 빈번히 있는데도 훈계하는데 주저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인즉 이 살벌하고 인정이 매마르고 각박한 세상에 적응해서 잘 살아가려고 하면 순한 사람보다는 남을 다소 괴롭히는 한이 있어도 좀 거칠고 지독한 것이 되려 낫지않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 때문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무서운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하게 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만해도 불안하고 마음이 섬뜩해진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양육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떤 형태로 변할까?

걱정스럽기만 하다.

자기를 바르게 지키면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며 양보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일이 자식 양육하는데 순리대로의 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일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사회는 부드럽고 느긋하며 자신만만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는지 대체로 우리 사회나 생활양식이 자신만만하고 느긋함이 결여되어 있음을 유럽 사회와 비교해 보면 금세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 있다.

1945년 일제의 쇠사슬에서 풀려난지 40여년이 지나는 동안 정치를 제외한 다른 분야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 최고의 수준에 미치는 분야도 적지않이 많다.

자동차산업이라 든지 전자공학 조선부분 등 그 밖에도 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정치만은 담보상태 내지는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이 누구나 공통하게 인지되어 있다고 본다.

이념적인 갈등이 심한 불란서에서 사회당이 집권하는 이번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야당과의 관계가 우리 나라의 여당과 야당과의 관계처럼 희의를 못할 정도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정치는 국민들이 절망에 처해 있을때 희망으로 바꾸어 주고 대립의 관계에서 타협의 관계에 이르게 하며 도전했다가는 다시 타협으로 유도하는 것이 정

치가 만들어내는 예술품이어야 한다. 하지만 정치가 잘못되어 가는 것이 반드시 정치의 타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는 그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는만큼 그 사회상에 따라서 정치는 형태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회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즉 사회라는 바탕에서 그 바탕에 알맞은 정치가 펼쳐져야 하며 그 바탕 즉 사회가 정치를 연출하는 각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 사회는 느긋하게 기다림이 없고 조급하며 거치른데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제 2차 세계대전후 후진국들은 근대화하려고 무척 안간힘을 썼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조금 유난한데가 있어 마치 윤회유가 없는 기계처럼 거칠고 조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것은 모르는 몰라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강한 성취욕 때문일 것이고 성취욕이 강하다 보니 남보다 빨리 성취하려는 생각이 경쟁심을 일으켜 그 경쟁심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성취만 하려고 하니 마치 운동경기장에서 반칙하면서 득점하는 것같이 범법도 불사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엔 큰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이런 사회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조급하고 사납고 거칠어질 수 밖에 없다.

세상에 경쟁심이 없이는 살 수도 없으며 경쟁심이 없는 곳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경쟁심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 자기의 몫을 다하며 찾아야 될 권리를 찾으면서 순리대로 사회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규칙과 질서가 확립됨이 무엇보다 선결문제일 것이다. 자기 노력의 정당한 댓가를 지불받으며 떠나할것없이 준법하면서 생활하면 공신력있는 사회로 변모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지키는 일을 마음속 깊은데서 긍정적으로 받아드리지 않고 형식적 외형적인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도로에서 운전자가 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든가 안전벨트를 착용했다든가 하는 문제등으로 미루어보면 가히 짐작이 가며 길이 막혔을 때 앞차가 빠진 후 같이 가면 될 일을 옆으로 조급하게 빠져 나가느라고 요란한 크라톤을 울리며 되려 전체적인 소통을 늦추는 경우도 많다. 유럽사람들은 느긋하게 앞차가 빠질때까지 언제까지라도 말없이 기다리는 것을 볼때 느긋이 기다리는 여유있는 행동이라고 느껴진다. 이러한 잘못의 고침은 경쟁을 시키되 서로 다투고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세대에서는 이미 받은 교육과 사회상이 그것을 쫓아갈 능력(사상)이 없다고 생각되어 우리의 2세에게 참다운 교육을 시켜 후대에서나 기대할 수 밖에 없다고 느껴진다.

근본적인 정신이 남을 침해할 수도 없고 남으로부터 침해를 받지도 않는 사회로 정착되면 불신감이나 불의한 경쟁이나 거칠고 조급함이 자취를 감추고 부드럽고 느긋하면서도 자신만만한 사회로 변모해가는 하나하나의 과정을 기대해 본다.

청소년 지도문제를 생각해 본다

龍仁子女中學校
校監 鄭弼永

오늘날의 社會, 家庭 그리고 學校에서 다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問題는 來日의 國家 社會의 主人이 될 靑少年들을 어떻게 해서 올바르게 成長시키느냐 하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이 問題야말로 社會나, 家庭이나 學校가 삼위 일체가 되어 생각해 보고 指導 對策에 임해야 할 問題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요사이 靑少年들이 날이 갈수록 道德性이 메말라 性品이 거칠어지고 行動이 不良化 되어가는 傾向이 있어 가정과 社會에 많은 不安을 조성하고 있음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즉, 오늘날 靑少年들은 밝고 활발한 믿음직한 면도 많지만은, 반면 自己 자신들의 뚜렷하고 건전한 價値觀과 主體性이 서 있지 않은 狀態에서 方向 감각을 喪失한 채 無分別한 行動을 하는 傾向마저 있다는 데에 問題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靑少年의 問題는 처음부터 本質的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라고만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선천적인 原因보다는 오히려 후천적인 데에 더 큰 原因이 있다고 하겠으며, 후천적인 原因으로서는 특히 家庭과 社會 環境, 아울러 가정, 사회, 학교 教育이 미치지 못한 데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오늘날 一般 社會의 風潮, 즉 環境은 어떠한 特徵이 있고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중 重要的한 것들을 몇가지 들어보면,

첫째, 가치관의 다양화 風潮로 靑少年들의 思考 方式이나 生活 態度 形成에 混亂을 招來하고 있어 道德的인 價値觀이 가버이 여겨지고 있고 敬老孝親의 전통정신 마저 경시되는 면이 있을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죄의식이 희박해 지는 면도 있는 것 같다.

둘째, 물질주의의 傾向이 팽창되고 物質的 生活 水準이 좀 높아졌다고 해서 物質 不足 狀態의 고통 등을 忘却하고 物質 제일주의의 思考 方式은 人間의 精神面의 重要性 마저 喪失하기 쉽게하고 있으며 이는 人間 尊貴性을 파괴하는 風潮라고 아니할 수 없다.

세째, 지나친 이기주의의 風潮로 是, 非, 善, 惡의 道義的인 判斷에서 오는 정의감과 秩序 意識을 흐리게 하고 있으며 利己的인 競爭과 無秩序, 그리고



非理가 판치게 되며, 반면 헌신, 봉사적 人間美는 喪失되어 社會를 어지럽히는 등 각종 범죄 行爲가 생기는 要因이 되고 있다고 본다.

네째, 出世 지향적인 고학력 지향으로 정규학교 教育課程 이외의 공부를 強要하여 知·德·體·技의 調和로운 人間的인 成長을 저해하고 일그러진 人間性을 만들기 쉬운 要因이 되고 있다고 본다.

다섯째, 핵가정화에서의 과잉보호 風潮로 인해서 安逸主義에 사로잡혀 버릇이 없고, 克己力, 自立心, 進就的 기상 등이 싹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여섯째, 일부층의 奢侈와 낭비와 흥행 風潮로 인해서 배금주의가 팽배하고 勤勉, 誠實히 살고자 하는 意慾을 저해시키거나 분수에 넘치는 허영된 生活을 하여 靑少年 心理에 끼치는 영향도 크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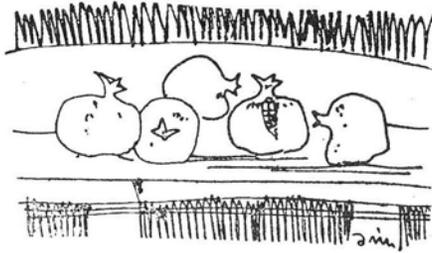
일곱째, 매스컴이나 廣告 등의 불건전한 內容들이 자라나는 靑少年들의 눈과 귀를 자극하여 不道德的, 不法的 行爲를 유발하는 면도 있다고 본다.

여덟째, 家庭의 職業 분화등 가정의 不安定으로 家族의 精緒的인 紐帶關係가 유리되어 子女와의 접촉과 對話와 교육 지도의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사랑과 엄격을 基礎로 한 人성교육이 불충분한 現象도 露出되고 있다. 이외에도 靑少年들의 餘暇 선용을 위한 장소등 環境問題도 있지만, 이상 짚고 넘어가야 할 社會風潮, 나아가서는 사회 풍조적인 環境과 이것들이 靑少年들에게 끼치는 영향 즉, 靑少年 問題의 후천적, 환경적 原因과 영향을 생각해 보았으나 그렇다고 원인 진단과 批判만으로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서 社會, 家庭, 學校가 共同 使命을 지니고 서로 손을 잡고 社會環境 改善과 教育指導에 精誠과 努力을 다할 때에 이 땅에서 건설하고 믿음직한 靑少年상은 定立될 것으로 본다.

특히, 風土 環境面에서 가장 先行 問題는 ①; 社會, 家庭, 學校가 서로 反省을 하여 가정에서나 모든 생활면에서 기성 世代가 模範的인 言行을 보여 環境 改善에 率先 수범해야 하며 이는 孟母의 “三遷之教”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며, ②; 風潮的인 環境으로 악 영향을 주는 모든 要素를 찾아내서 精神指導 단체들의 協助와 方法을 동원하여 誠意있고 치밀한 구상 아래 改善에 努力해야 할 것이고, ③; 社會, 家庭, 學校가 모두 教育風土를 造成하여 “教育의 場”으로서의 바탕위에 教育的인 협조를 하는 風土를 조성, 모든 협조 단체들이 협의 研究하고 奉仕的인 役割을 분담해야 할 것이며 이에 앞서 留意해야 할 일은, ④; 오늘날 靑少年들이 지니고 있는 精神的인 심층과 葛藤 등을 把握하여 靑少年의 立場에서 이들을 理解하고 成長



을 돕는 자세에서 출발하는 것이 靑少年 問題를 쉽게 풀어 나가는 실마리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⑤ ; 한편 道德的인 風土造成을 위한 精神運動을 展開하여 靑少年들이 어떠한 風潮와 環境과 逆境에서도 그릇된 方向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여 自己 反省과 자기 完成에 힘쓰도록 풍토 조성과 교육지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龍仁은 山水가 아름답고 여러 聖賢의 일이 서려있는 고장인 만큼 來日의 主人公인 우리 고장의 靑少年들이 참되고 착하고 아름답게 成長할 수 있도록 우리 고장이 한 教育 場所로서 精神 풍토 조성과 교육에 힘써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자취하며 야윈것 같다시며 설새없이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엄마의 따스함에 가을 하늘의 푸르름이 눈물겹도록 감사하다.

어느날,

서울서 직장생활하는 친구에게서 엽서가 날아 들었다. 콘크리트 빌딩들이 어찌니, 차량들의 행렬은 또 어찌하고 바쁘게 시작되는 서울의 아침은 등등, 웬지 삭막한, 뼈만 앙상해 보기 안타까운 듯한 내용들 뿐이고, 진한 커피에 알아 듣지도 못하는 팝에 귀 기울이며 오랫동안 혼자 살아와 고독에 익숙해진 모습이였다.

그것이 갈래머리 땅아 내리고, 제복 입고 학교에 다닐때는 낭만 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은 유치한 사치라고 여겨진다.

그런 친구에게 항상 내 고향마을의 초라하지만 깊은 정이 있는 풍경과 시골사람들의 순박한 삶의 모습을 적어 보내 주는걸 게을리 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옛날 벌거벗고 뛰어놀던 그들의 고향마을을 잃어 가고 있다.

텅빈 가슴 부여잡고 철지난 바닷가에 앉아 유난스러운 가슴앓이를 앓기보단, 마음의 고향을 찾아가 풀벌레 소리에 귀 기울이고, 들꽃 향기에 사랑스런 입맞춤을 잊지 말고, 맑은 개울가에 앉아 이 모든것을 마음에 담는 것이 현명 하지 않을런지.

곧 추석이다.

모든 것이 풍요롭다.

등근달도, 쏟아져 내릴듯한 알밤도, 지난 태풍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소곳이 고개숙인 벼 이삭들도.

그렇다.

이 모든것을 마음에 담아 채우리라. 그리고 살찌우리라. 지난날의 삽화가 아닌 지금 내 생활의 한 부분으로 만들리라.

어느 시간 어느 곳에서 어떤 누구에게 들려 주어도 정겨운 내 . 마음의 고향을 만들어 봐야지.



(詩)

가을 素描

박 상돈

가라앉은 물이 흘러
 맑은 가슴 속
 먼 산 그늘
 갈색 水草 어리고
 저만이 푸르른 하늘
 마저 잠기다.
 저기
 저 水深 속으로
 서둘러
 길 떠나는 새
 無心한 季節이여
 그대또한
 소매 끝 잡아도
 머물지 않으려니
 그저
 지나가는 모든 것
 더불어 떠나면
 그 뿐인 日常들을
 선뜻 돌아서지 못할 안타까움
 무슨 갈망이 남았길래
 두 눈
 내려감은
 컷가에 들리느니
 가을 새
 가을 바람
 새 소리
 바람 소리
 덧없는
 歲月 소리.





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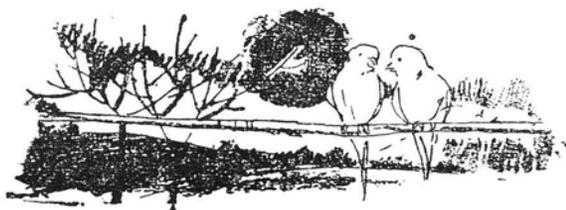
朴 峻奎

날아 오르며
날아 내리며
알 수 없는 목마름.

한번은 새 한마리가 방 안에 갇혀 파득일 때 같이 갇힌 하늘도 퍼런 멍이 들었다. 이때 부터 내 房에는 날마다 쌓이는 새 깃털과 등이 굽은 새 울음소리가 들렸다.

앉아있는 새가 그리운
사람들은 만나 술을 마시고
누워있는 江물에
발을 적시고
아 — 부끄럽게 잠드는 사람들

보여라
살고 싶은 꿈을
어디쯤에선
새들이 발을 내리고
서로의 날개를 기대고 있으니



(詩)

꽃의 인사

이 길호

밝은 햇살
끊임없는 아낌으로
이해하고 싶음은
멀리서 가까이
가까이서 멀어리
오고가는 人情이
다시 돌아오고 있음을
그대의 엽서 위에
느정이를 보았을 때
여름은 가을에게
겨울은 봄에게
시간과 나
나와 꽃
우리의 인사는 미소
밝은 미소임을 …….



땡그랑 땡그랑

기 흥 국 민 학 교
4 의 2 이 정 희

땡그랑, 냐냐, 땡그랑, 냐냐,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구요? 오동통통 하게 설이쨌 돼지 저금통이 동진 밥을 먹는 소리지요.

내가 돼지에게 밥을 주기 시작 한것은 2.학년 때부터이다. 동전이나 지폐의 천원짜리나 잘 받아 먹는 못난 돼지이지만 그래도 나는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설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주신 세뱃돈 또, 아빠께서 주신 용돈을 아껴서 땡그랑 하고 소리를 내며 집어 넣으면 돼지는,

“고마워요” 하며 미소를 짓는 듯 했다. 그러기를 어느덧 1년이 지나 내가 3 학년이 되었고 물론 돼지도 한살 더 먹게 되었다.

4 학년, 5 학년, 6 학년, 중학교에 갈때까지 돼지를 사랑하며 더욱 많은 밥을 줄것을 마음 속으로 약속을 하고 아버지의 구두를 닦아 드리면 꼭 주시는 100 원 짜리 동전 3개, 신이난다. 어머니께서 심부름을 시키시기를 기다린다. 왜냐하면 땡그랑, 땡그랑 소리를 듣고 싶어서이기 때문이다.

지난날 이모께서 다녀가시며 1000 원을 주셨다. 맛있는 과자, 음료수 이런 것들이 나의 눈길을 끌고 마음을 끌었지만 책상위에 앉아 있는 돼지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였다. “언니, 이리와봐 나 지금 배가 고파” 하며 손짓을 하는 것 같았다.

어느날 날씨가 몹씨 추웠다. 아침에 동전을 주시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추우니까 버스를 타고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추웠다. 귀도 얼고 손도 얼고 몸도 뽕뽕 어는것 같았지만 참았다.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는 길은 추웠지만 내손에는 100 원짜리 동전이 꼭 쥐어져 있었고 동전을 권 손바닥에는 땀이 축축히 나 있었다. 얼른 돼지에게 넣어주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 내가 4 학년이 되었다. 5월 8일은 잊어서는 안될 날이다. 나를 낳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 바로 어버이날이다. 이렇게 좋은날 나는 아빠 엄마께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까? 하고 작은 걱정이 생긴다. 바로 이때 책상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 하였다. “언니, 제가

있잖아요” 하며 배를 두드렸다.

“아! 그렇구나, 미안하지만 조금만 빌려줘” 이렇게 해서 돼지 저금통을 뜯었더니 38620 원 나왔다. 그 중에서 35620 원을 새 돼지 저금통에 넣고 나머지 3천원을 가지고 아빠 엄마께 조그만 선물을 하기로 결정했다. 아빠 가슴엔 내가 엄마 가슴엔 동생이 카네이션을 달아 드렸다.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하며 우리들은 아빠 엄마 가슴에 꼭 안겼다.

부모님께서서는 우리들을 꼬~옥 안아주시며 “그동안, 많이 모았구나, 앞으로도 용돈을 아껴써서 돼지를 살찌게 하렴” 저축이란 나를 위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돼지 저금통을 바라보며 생각해 본다.

‘땡그랑 한 번에 기쁨이 오고, 땡그랑 두 번에 웃음꽃이 피고, 땡그랑 세 번에 밝은 내일이 다가오는 행복의 소리…….’

희망의 통장

백암고등학교
1학년 백승각

타는듯한 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더해가는 불쾌지수와 찬 것을 그리워하는 시간의 시작이기도 하다.

이맘때쯤 되면 우리의 가정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피서를 계획하고 꿈아닌 망상에 부풀어 있다. 그리고 피서를 가기 위하여 일 년 식비만큼의 돈을 며칠 사이로 쓴다. 그리고 무계획이 자랑인양 “난 얼마 갖고 갔는데 못쓰겠어, 다음 번엔 좀더 갖고 가야겠어” 등의 말을 유행어 처럼 사용해왔다.

나는 이 지면에 작은 저축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으며 희망이었는지를 쓰려 한다. 김 순희! 분명 그 여공의 이름은 김 순희이다. 가난한 광부의 딸로 태어나 홀어머니 밑에서 고등교육도 받지못한채 혼탁하고 소음많은 작은 봉채 공장에 여공이 되었다. 그것은 분명히 운명앞에 어쩔수 없는 순응과도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여공의 가슴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희망과 진실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저축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차 있었다. 행동하기조차 힘겹고 무서운 서울 시장 주변에서 여공은 번번히 뒷걸음 쳤다. 그리고 라면……. 어떤이가 듣는 다면 이렇게 비양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돈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우선 먹구 또 쓰구 봐야지” 그러나 그 여공에게는 길거리에 버리는 그 노란 십원짜리 동전하나도 그렇게 소중한 수가 없었다. 자기의 돼지 저금통에 한낱두낱 동전이 쌓일때면 전국을 그리고 이 세상 누구 보다도 행복한 진실을 얻은듯한 기분에 빠지곤 하였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겨울이었는데 자질구레한 빨래를 하기 위해 빨래비누를 찾았다. 물론 알뜰한 여공이었기에 스타킹에 싸인 조각비누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다. 고무장갑을 끼고 찬물에 손을 담그니까 손에 느껴어지는 그 차가움이란— 하지만 선뜻 그 흰 고무장갑을 내버릴수는 없었다. 한번만이라도 더 쓰고 싶었다. 분명히 아픔은 칼날 같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여공은 참아야만 했다. 그리고 1000 원도 채 안되는 그 돈을 조금이라도 더 늦게 쓰려고 어리석음일 수도 있는 인내를 참아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도 쉽게 그 아픔의 인내를 어리석음이라고는 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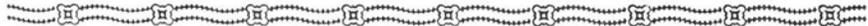


그러나 우리는 자기 허세인양 과욕인양 돈을 쓰고 또한 그것을 조금도 부끄러워 하지도 않고 오히려 넉넉한 부의 교만인양 까분다.

그 여공의 반찬은 항상 한 두가지가 고작이었다. 김치 그리고 약간의 양념을 한 쓴 국 / 어떤때는 그 쓴 국에 수저를 담그면서 울기도 했으리라. 하지만 참았다. 그것을 인내도 아닌 운명을 이기려는 의지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또한 여공이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을 때 그 여공은 왈각 울고 말았다. 설움에 겨운 눈물이었다 님이 차라리 맞는 표현이리라. 대도시의 부잣집 자식들의 일주일 용돈 밖에는 되지않는 그 돈이 여공에게는 그야말로 피가짓든 그런 돈이었다. 또 여공은 그 돈을 저축을 했다. 간단하게 주린 식비만을 제외한 그 돈 모두를 저축함에 있어서 여공의 가슴이 얼마나 설레이고 힘찬 감격이었는지는 본인이 아니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러한 감격을 여러번 하는 동안 여공은 후회한번 없었으며 다른 잘 차린 여공들이 부럽지도 않았고 배불리 먹고 화장하고 다니는 친구들도 부럽지 않았다. 쌓여가는 작은 그 노란통장은 그 모든 것 보다 큰 기쁨이었기 때문이리라. 공장에서도 그리고 조금씩 돈을 아껴 다니던 야간학교에서도 칭찬하며 장학금도 주고 쌀도 주었다. 또 사랑도 주었다. 모든것은 여공이 만들어 놓은 섭리와도 같은 결과였다. 그 언제나 변함없는 성실로 연구어 가던 여공앞에 뜻밖에도 어머니의 죽음이 들렸다. 오열할 수도 없었다. 가난한 자의 아픔이기에 누구도 찾아와 주지않았다. 가난속에 멍들고 찌든 어머니의 죽음은 오열할 수조차 없는 빈곤속에서의 상처였다. 그 아끼고 아끼던 돈 그리고 몇끼를 절약하여 얻은 그 설움의 돈들을 오열하지 못할 설움앞에 썼다. 여공은 울지않았다. 울수가 없었다 한다. 눈물이 나올려 하다가도 그 고생하던 어머니의 힘겨움을 회상하면 눈물이 아닌 세상에 대한 치가 떨리더란다. 그 시간이 지나고 다시 여공은 생활고와 부딪쳐야만 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두 동생의 엄마로서의 출발이었다. 그러는 가운데 저축에 대한 믿음과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않고 일하였다. 동생들도 아침에는 신문과 우유를 돌리며 누나를 도왔다. 그리고 그들도 누나에게서 삶의 구원과도 같은 노란 저금통장을 갖게 되었다.

순희양이 저축에 대한 남다른 집착은 그 옛날 집안이 넉넉했을 때 저축하지 않고 계획없이 쓰던 자신의 집에 대한 질시이며 다시 또 그 상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했다.

여공에게 있어 10년은 방황하는 아니 방랑자의 100년 1000년보다 긴 그리고 무게획한 헛놀림의 10분 보다 짧은 그런 시간이었다. 어느덧 그녀의 저금 통장은 부자가 되어 있었고 저금은 믿음이라며 지금은 주부가 되어



말한다.

저축이란 단어를 일부특정한 이에게만 적용하는 말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저축할 돈이 있어야지 하는 식으로 말하는 이도 있다. 누구도 가난하고자 해서 가난한자는 없다. 누구도 그 차가운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싶어 하는 이는 없고 누구도 그 쓴 국을 국물이라 여기며 먹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누구도 원하지 않기에 우리는 해낼수 있다. 누군가 아니 여공이 해냈기에 해낼수 있으며 믿음과 희망이었던 그 손때물은 저금 통장을 간직할 수 있다. 운명앞에 굴복하지 말자 그리고 나의 한뼘이 모여서 나의 가정을 지킨다는 것도 잊지말자 고통을 겪어야만 깨우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자 믿음이었으며 희망이었던 그 통장을 여공은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 용인새마을 문고 주최 우수독후감 모집 최우수당선작 ▶

명사 66 인이 쓴 내가받은 가정교육

양지 국민학교
새마을어머니회 손 영 옥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배운 것도 많지만 세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 가정 교육을 생각해 보았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랄때 가정교육과 또한 내가 자랄때의 가정교육, 또 다른 것은 내가 지금 엄마가 되어 나의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이 책을 쓰신 66인 중 거의 모두가 지금 30대의 부모님 정도이신 분들이다. 그 분들의 어린시절은 나라의 격동기가 많았다. 일제의 압박과 해방 그리고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동란 이런 혼란 속에서도 그 분들은 좌절치 않고 절대적인 산 교육을 받았다.

일정한 시간에 강압적인 교육이 아닌 몸에 배인 행동으로 그때 그때 은연 중에 보고 배운 것을 교육시킨 것이다.

나라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고 배운 나라 사랑하는 마음, 또한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는 부모님을 보고 배운 가족 사랑하는 마음, 또한 그림 그리는 부모밑에 화가 자녀가 나왔고, 음악 좋아하는 부모밑에 음악가가 나왔고, 글 쓰는 부모님께 배운 자녀가 시인, 소설가가 되었다.

그 분들의 교육은 사실적이고 숨김없는 산 교육이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요즘 사회 문제인 불량 청소년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왜 이런 문제가 일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그들 본인의 잘못만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런 아이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가르쳤고, 배운 분들일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자녀앞에 섰던가? 사랑 대신에 물질로 아이들의 마음을 잡은 것은 아닌지?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각박해지는 세상에 대처하기 위해 부모님들은 자녀교육 보다는 물질추구에 여념이 없다.

물질로 세상을 살수 있지만 자녀만은 그렇지가 않다. 옛날 어른들의 교육수단은 엄격한 사랑과 회초리가 아니었나 싶다. 회초리 끝에도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깨달아 반항아닌 순종과 눈물로써 받아들였다. 이 책을 쓰신 한분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다. 옛날 어떤 선비가 서울에 와서 과거를 봐서 장원급제를 하여 영광스럽게 시골집으로 내려가다가 산모퉁이에 서 있는 물푸레나무를 보고 말에서 내려 절을 하였단다. 종아리를 맞은 덕분에 공부

를 잘하여 장원을 했으니 고마워서 절을 한 것이다. 진실로 사랑을 능가할 교육은 없다고 한다. 사랑안에서 잘못된 씩은 없는 법이다. 어둡고 습한 음지에서 병들고 이즈러질 수 밖에 없는 생명도 태양의 양광아래에서 숙성하고 푸르게 자라도록 되어있다. 맹목적 사랑과 무한한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자녀 교육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훈훈한 사랑과, 엄격함을 현대는 잃고 있다.

엄마, 아빠는 아이들 손에 동전 몇냥 쥐어 주고 회사로 가고 아파트에 남은 아이들은 공허해진다. 노인들은 아이들이 버릇 나빠진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양로원으로 갈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가는 세상이다.

66인들 거의가 한결같은 말씀은 늘 부모님이 곁에 계시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바르게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이다.

현대 사회는 아이들도 바쁘다. 꾸중하고 나무랄 시간조차 없다. 아이들은 피아노, 태권도, 주산 학원으로 뛰다보니 뛰어놀 시간조차 없다. 편한 세상이 되었지만 인간성을 상실했다. 동방예의지국은 사라져 가고있다. 학교에서 공부할 청소년들은 담배다, 술로 인해 이그러지고 있다.

그들은 무엇을 보고 배웠나?

우리 기성 세대들도 언행을 반성해 봐야겠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밤늦게 술취해 들어왔다가 새벽에 나가시고, 어머니는 사회활동으로 분주하다. 명성과 물질외에 중요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 걸까?

나도 자녀 교육시키는 지혜를 배울 수 있었으니 감사할 뿐이다.

나는 6·25동란이 끝날 때에 태어나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라났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시절, 그래서 그런지 늘 먹을 것은 아깝고 입을 것은 아끼고 손질하여 여러해를 입어도 늘 새것 같다. 물자가 귀한 시절이라서 나의 어머니는 늘 정성스럽게 헌 옷을 지어주셨다. 기나긴 겨울밤 등잔불 밑에서 바느질을 하시던 어머니모습이 이제는 그리워진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척척 입혀주는 마음을 가르키지 못한 것이 나의 책임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옛 어른들은 늘 자녀에게 사랑이 듬뿍 담긴 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사랑이 담긴 음식을 만들어 주셨다. 요즘 세대에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 하고 쉬운 것을 택한다. 힘들여 정성을 쏟는 일엔 귀찮아한다. 일류 백화점에서 좋은 옷을 사 주어야만 자녀를 더욱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또한 바쁜 생활가운데 맛있는 음식은 외식으로 해야만 사랑이 있는 줄 알고 있다.

66 분들이 훌륭한 인물이 된것은 정말 훌륭한 가정교육이 뒷받침 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래라, 저래라 말 보다는 묵묵히 몸소 행함으로 보여주는 산 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훌륭한 자녀 교육이 있으므로 나라가 부강하고 나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것이다.



꽃꽂이

꽃물 풀고 풀어

영지회 꽃꽂이 용인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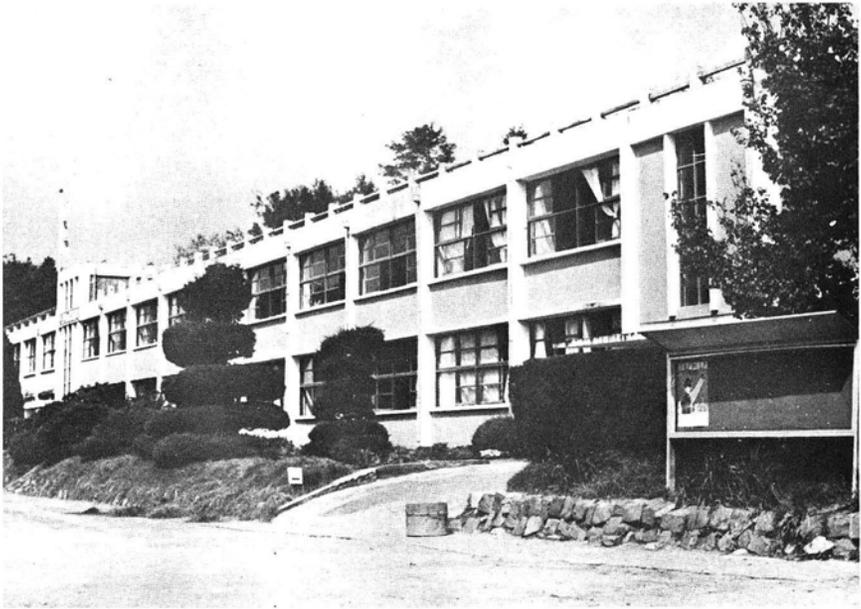
지도 오 민 근
사범 김 연 태



素 材 후박나무
글라디올라스(보라)
명계
수국(연보라)
창포(흰색)
니시안샤스(진보라), 백합

늘상 가난한 빈손
채울수록 소리나는 가슴
목숨 풀어도 허허로운 이웃
꽃물 풀고 풀어 넘치도록 더 하리라.

원삼중학교



1. 학교명 : 원삼중학교
2. 학교장 : 최 운 열
3. 소재지 :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고당리 산 95 ~ 1
4. 연 력
 - 1950. 4. 1 원삼 농업고등공민학교로 개교
 - 1963. 2. 9 원삼중학교 인가(3학급)
 - 1963. 4. 1 초대 박창조 교장 취임
 - 1977. 12. 10 교실 증축(총 17교실, 창고 1실 확보)
 - 1979. 1. 5 보건장 확장공사
 - 1982. 12. 12 숙직실, 사택, 생활관 준공
 - 1985. 3. 1 제 8대 최운열 교장 취임
 - 1985. 11. 10 교내 도로포장
 - 1986. 2. 14 제 23회 졸업식(총 3,652명)
 - 1986. 6. 18 급수대 및 진입로 포장

교 가

박윤근 작사
박만길 작곡

moderato

백두산은기 받은 수려문수봉
기 - 품진넙은 전 아 좌 함 미 평 들
아침해 저녁노 - 을 서기어 - 렸 -
다 한 가 닥 참된길 - 을 올바
르게뒤 으 리 아 아 아 -
이 새 싹이 움 - 트 는 원
삼 - 중 학 교



5. 교육목표

- 가. 올바른 국가관과 반공의식을 바탕으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학생을 기른다. (애국인)
- 나. 성실하게 배우고 익혀서 자기 진로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른다. (능력인)
- 다. 근검 절약과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성을 지닌 사람을 기른다. (사회인)
- 라. 과학적 생활 태도를 통하여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바탕을 갖춘 사람을 기른다. (과학인)
- 마. 건전한 신체와 강인한 의지로 명량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기른다. (건강인)

6. 학교상징

- 교훈 : 성실한 마음으로 근면하게 생활하자.
- 교화 : 개나리
- 교목 : 잣나무
- 경영지표

학 교 상	학 생 상	교 사 상
1. 공부하는 학교	1. 부지런한 학생	1. 연구하는 교사
2. 질서있는 학교	2. 협조하는 학생	2. 활동하는 교사
3. 깨끗한 학교	3. 쓸모있는 학생	3. 존경받는 교사

7. 학교현황

학 생 현 황	졸 업 생 현 황	교 직 원 현 황
1학년 3학급 199명	23회 3,652명 (86.2.14 현재)	교 원 16명
2학년 3학급 182명		일 반 직 4명
3학년 3학급 199명		계 17명
계 9학급 580명		

8. 학교교육현황

가. 학교 특색

특색사업	목 적	발 현 내 용
1. 중간체조 (월~금)	건강한 신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심시간에 운영(4~6, 9~11월) ○ 리듬 체조
2. 학습환경 개선의 날 운영 (매주 금요일)	근로 정신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외 환경 조성 ○ 「소망의 언덕」비 건립 ○ 수목관리 ○ 버섯재배 ○ 진입로 포장
3. 자율학습장 제 운영 (월~토)	자율 학습 능력 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학습부장 선정지도(교과별) ○ 생활영어, 천자문지도 ○ 학교환경(영어, 한자)게시지도
4. 학습평가 자료 제작	학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 영어과, 진단·형성평가 자료 제작 ○ 한문교육자료 및 평가자료제작 ○ 학교환경 교재화

나. 노력중점

노 력 중 점	실 천 방 향
1. 학습 능력의 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부진아 선별 지도 ○ 교과별 자율학습장제 실시
2. 독서의 생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별 필독도서 선별 ○ 학급문고 확충 ○ 다독 및 독후감 우수 발표자 표창
3. 질서의식의 체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질서의 확립 ○ 역행 질서의 이행 ○ 관계 질서의 존중
4. 학도 애향대 활동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향심 함양 ○ 경노사상 고취 ○ 마을꽃길 가꾸기 및 가로수 관리

다. '85. '86 학년도 주요실적

- 교위 장학지도 우수교 표창('85. 12. 31)
- 교육청 주최 수학경시대회 종합우승('85. 10. 14)
- 교육청 주최 테니스대회 우승(3년패)
- 학교간 육상대회 여자부 종합우승('85)
- 교육청 주최 영어 말하기 및 암송대회(우수 2, 장려 1)
- 과학실험 우수교 표창('86. 9. 1)

라. 장학금 수혜 현황('86)

- 금강 장학금(2명)
- 새마을 어머니회 장학금(1명)
- 재경 용인 장학금(1명)
- 백암 공업사 장학금(1명)
- 기상대 장학금(3명)
-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1명)
- 원삼 농협단위조합 장학금(1명)
- 용인 라이온스클럽 장학금(1명)
- 원삼면 노인회 장학금(1명)
- 해동산업장학회 장학금(1명)

言論界의 先覺者 石儂 柳 瑾

(中)

朴 鏞 益

그동안 나라 안팎은 떠들석하여 소사(素沙)에서 청(淸)나라와 왜(倭)가 싸운지가 10년전 일이요, 월미도(月尾島)에서 러시아(露西亞)와 왜(倭)와 어울리기는 바로 전(前) 해이다.

날이 갈수록 각국(各國)의 내정간섭(內政干涉)이 심한 가운데 왜(倭)놈들은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외교권(外交權)을 강탈(強奪)하니 나라의 주권(主權)은 상실(喪失)하게 되었다. 이에 분개(憤慨)한 선생은 그의 무기(武器)인 붓을 들었다. 이 때에 초(草)한 것이 2천만 거래의 가슴을 울린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다. 이 때문에 황성신문(皇城新聞)은 폐간(廢刊)당하였다. 이 글의 주인은 책임상(責任上) 장이암지연(張韋庵志淵)으로 알게되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선생은 이암(韋庵)에 대하여 늘 못마땅하게 여겼다.

심지어 어느 술자리에서 웃으며 하는 말로, “너는 이름이 지연(志淵)이나 뜻은 다 풀어지고 네가 가진 것음 없나”라고 하였다.

그러나 장이암(張韋庵)은 그 때에 무슨 뜻을 가졌는지 늘 잘못된 솜씨로 하하…… 소리를 하며 대꾸를 하지 아니하고 “석농(石儂)자네 어서 술먹게! 나는 술이나 먹지”라고 하였다. 이 때 석농(石儂)은 바둑판으로 돌아 앉았다.

“자- 누구 바둑두자” 하며 대국(對局)하는 이에게,

“네 까짓 바둑이, 바둑이나. 어른만큼이나 두어야지. 그러나 나도 옛적 사람보다 못하여! 삼국시대(三國時代) 때는 모든것이 융성(隆盛)하니만큼 유희(遊戱)인 바둑도 장족진보(長足進步)하여 당(唐)나라에서 신라(新羅)에 사신(使臣)을 보낼적에 정사(正使)는 선비인 외교가(外交家)를 보내지마는 부사(副使)는 반드시 선수(善手)를 보냈는데, (선비……학자(學者)라는 뜻)……, 하고 일갈(一喝) 하니 그는 바둑두는 것 같지 않고 무슨 역사강의(歷史講義)를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생선단제술진세(生先壇帝戎辰歲)해야 안급기왕호마한(眠及箕王號馬韓)을 시조체(時調體)로 한번 읊고 “자- 어서 두어라” 하고 바둑을 땡땡 놓았다. 이 글은 단종(端宗) 때 홍유손(洪裕孫)이 남효온(南孝溫)의 금강산(金剛山) 구경간다는 말을 듣고 洪이 먼저가서 큰바위에 새겨

놓고 효온(孝溫)을 속이어 장난한 글이다. 생각하건데 대국(對局) 하던 이가 자기와 상합(相合)하던 이가 아닌가 한다.

선생은 유학자(儒學者)이다. 배움(學)이 신구(新舊)에 통하여, 옛말로 말하면 백가(百家)를 회통(會通) 하였으며, 근래(近來)에는 동서(東西)를 두루 살펴 박식(博識) 하였다. 이는 일찌기 중국(中國)으로부터 오는 한역서적(漢譯書籍)을 얻어 보았으니 말하자면 일찍 개화(開化)한 까닭이다. 진서(秦西)니 법덕(法德)이니 화차(火車) 운선(輪船)이라 하고 쓰이는 말은 그들이 보고 쓰든 말이다.

“사람은 반드시 믿는데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니 곧 종교(宗教)가 있어야 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기가 의신(依信) 한데는 조선 상고(上古)로 부터 내려오는 대종교(大宗教)이다. 그의 교리(教理)를 깨운 것은 물론이지만, 조선고래(古來)의 종교를 조사 연구하며 조선전래(祖先傳來)의 언어습속(言語習俗)과 문헌전적(文獻典籍)을 채집(採集) 함으로써, 어휘(語彙)도 많이 알며 민족적(民族的) 종교심리(宗教心理)에도 매우 집착하여 그를 보면 그의 언행(言行)의 민족적(民族的) -조선적국수(朝鮮的國粹)에 쓸림에, 남보기에 한 국수주의자(國粹主義者) -국학전주자(國學專主者) 같이 보였다. 그러기에 그의 여년(餘年)에 조선학소양(朝鮮學所養)이 더욱 깊었으며 소신(所信)이 더욱 커져 그의 말이 갑갑하지 아니하고 행동(行動)에 꾸밈이 없었다. 그가 가끔 이야기 하는 것은 신교(神教), 선교(仙敎)에 대한 것이며 외우는 글이 많았고, 먼저 바둑을 두면서 읊던 시(詩)도 역시 선파(仙派)의 시(詩)임을 보아 알것이다.

어느 좌중(座中)에서 어느 사람이,

“당신은 성명(姓名)이 무엇이요” 하고 물기에 “유근(柳瑾)을 몰라. 젊은 사람이 늙은이에게 버릇없이 구네.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유근(柳瑾)은 군량미(軍糧米)를 날렸지만, 이 유근(柳瑾)은 그대네들의 전조선민량(全朝鮮民糧)을 대려하는데 !……”라고 대답하니, “당신이 부자(富者)요 !” 하고 되물으니, “저런, 저런 부자(富者)가 누구 양식(糧食)을 대나, 나는 조선사람의 양식을 뎡다” 라고 하니 (註…양식(糧食)은 정신적양식(精神的糧食)을 말함)

“늙은이가 말씀 조심하시오” 라고 언성(言聲)이 높아졌다. 좌중(座中)의 어느 노인이, “석농유근선생(石農柳瑾先生)을 몰라 ! 하고 책(曷)하니 석농(石農)인줄 그제야 알고, “아- 노인선생(老人先生)이 바로 말씀하여 주시길 왜 그러세요” 하고 한바탕 웃었던 일화(逸話)가 더러 있었다.

선생이 평화(平和)의 인물인것은 이미 말하였거니와 또한 풍류(風流)의 인물이다. 글이 실재(實在)하였고, 시(詩)를 잘하였으며 시조(時調)도 알고 바둑도 잘두고 술도 잘자시며 외도한 경우도 짐작할만 하다.

학자(學者)라기 보다는 선비, 그냥 선비가 아니라 상식(常識)이 풍부한 선

비이며 행세(行世)가 점잖기 때문에 아니 절조(節操)를 지키기 때문에 참으로 선생님이시다. 말하자면 말하는 선비로서의 선생뿐이 아니라 행의(行儀)도 점잖은 선생, 과연 본받고 우러러 보아야 할 선생이다.

그는 世上 젊은이에게 대한 공편(公遍)한 꾸지람은 있었으나 집안 자질(子侄)에 대한 사사(私事)로운 꾸지람은 없었다. 어떤 젊은이가 술먹고 실수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젊은이에게, “사나이가 술을 먹으면 술을 이겨야지. 술에 져서 실수가 무엇이나! 예전 늙은이 호랑이 때려잡지 아니한 늙은이 없다고, 내가 시하(侍下)로 있을 적에 부모 몰래 술을 먹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술먹고라도 어버이앞에 손을 맞잡고 섰을 때 술기운이 어데 범(犯)한 단 말이나. 술을 먹고도 정신차려 주의하면 실수할 까닭이 없다.” 라고 점잖고 정당게 꾸짖으셨다. 이말과 같이 선생은 술을 자시되 실수한 적이 없었다.

선생이 술을 자시고 얼근하였을적에 여흥(餘興)의 시조(時調)를 부를판에는 과연 풍류(風流)다웠다. 한 때는 여러 젊은이와 더불어 청량리(淸涼里)로 갔었다. 해가 누엿누엿 넘어가고 저녁연기(煙氣)가 술술 오를때였다. 일행이 발을 돌려 보금자리를 찾아 돌아오는 길에 거당(矩堂)의 시(詩)를 잘 읊조려야…… “다소전가청초반(多小田家靑草畔)이 취연희견일서류(炊烟稀見日西流)…… 아직까지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음은 양식이나 없지 아니한것인가 하고 적지아니 걱정하였다. 옆에서 어떤 젊은이가 “선생, 거당(矩堂)이 누구야요” 하고 물으니, “허허 거당을 몰라 한말지사유길준선생(韓末志士俞吉濬先生)을 몰라 이놈들아 조금 있으면 유근(柳瑾)이도 모르겠구나” 하며 자기의 본색을 들어내었다.

이 때에 어떤 늙은이 한층이 술이 거나하게 취하여 닥아와, “당신이 시조를 아오구려. 요사히 젊은 애들의 시조야, 그것이 시조요. 천자문(千字文)이지 하며 시조 하나 불러보라고 선생을 시험하였다.

“(옥자초체낙월동) 玉宇迢遞落月東 (창과만경인번홍) 滄波萬頃忍翻紅 ” 하며 한번 멋지게 고조(古調)로 읊었다. 무엇이 상통(相通)한 것같이 과연 옛날 선비요, 율(律)에 맞는데 하고 한 늙은이가, “질방석 내지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리” 하고 한가락을 늘어뵈는데 어찌된 셈인지 소리는 멀리 구름밖에 들리고 소리하는 사람은 그림같이 앉았다. 그 읊는 소리는 슬픈대로 슬프고 고울대로 곱고 웅장할대로 웅장하고 활발할대로 활발하니 듣는 이로 하여금 참으로 흥에 겨워 울게하고 뛰게 한다. 한바탕 주거니 받거니 노니는 판으로 세상을 베끼었다. 이와같이 가사(歌詞)에 소양이 있는 것은 고본춘향전(古本春香傳)머리에, “여객(旅客) 같은 이 천지(天地)에 손님같은 광음(光陰)이라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負兒山과 沸流, 그리고 三角點

李 鎭 昊
(지적기술연수원 교수)

◆ 地 誌

負兒山의 위치는 용인군 용인을 남리와 화성군 동탄면 서리 경계선상에 있다. 古代에는 이 산을 負兒嶽이라고 하였는데, 옛날의 용인군은 驅城縣이었다. 산 모양이 아기를 업은것 같아 이러한 이름이 생긴것 같다.

표고 407미터의 정상에 오르면 전망이 아주 좋다. 서쪽에 신갈저수지가 푸르게 누워 있고 그 옆으로 경부고속도로가 길고 곧게 뻗어 있다. 10시 방향에 민속촌이 있는데 행정구역은 용인군 기흥면 보라리와 지곡리 두 마을에 걸쳐 있다. 동쪽 바로 밑에 준공된지 얼마안되는 유도대학이 있는데 이곳에서 86아시아 게임과 88올림픽의 유도경기가 열린다고 한다. 4시 방향에 명지대학교의 건물이 산재되어 있다.

◆ 역 사

삼국사기 百濟本記에 의하면 형 沸流와 아우 溫祚가 고구려에서 함께 망명하여 내려왔다가 새 도읍지를 물색하러 이 부아산에 올라갔다고 한다.

여기서 형인 沸流王과 신하인 아우 溫祚가 의견이 맞서 합의가 안되자 서로 헤어졌다. 沸流는 미추홀(지금의 충남 아산군 인주면)에 溫祚는 위례성 (충남 천원군 笠場面 虎堂里)에 도읍하였다. 이 때가 기원전 18년이다. 지금도 天原郡 聖居山 밑에 慰禮城地가 있다.

비류는 그 후 공주에 도읍했다가 광개토왕의 침공으로 일본열도에 쫓겨갔고 그 다음 해인 서기 397년에 망명정부를 세웠다. 이것이 바로 韓民族이 세운 일본 천황국가의 기원이다. (1982년, 沸流百濟와 日本의 國家起源, 金星昊지음에서, 이 책은 일본말로도 번역되었다)

이 부아산은 두 왕국이 생긴 시발점이고 일본민족이 탄생된 기점으로 역사적인 산이다.

◆ 삼각점

부아산 정상 — 비류와 온조가 서로 말다툼을 하였으리라고 짐작되는 — 에 삼각점이 하나 설치되어 있고 그 명칭도 「부아산」이다. 이 삼각점에는 좌표가

들이 있으니 그 하나는 구한국시대에 측량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한일합방이 되고 토지조사를 시행하였을 당시에 측량한 결과나 여기에 대하여는 좀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1904년 8월 일본 전권대사 하야시 곤스께(林勸助)와 외무대신서리 윤 치호(尹致昊, 1865~1946)사이에 제 1차 한일협약을 맺었다. 그 내용은 大韓政府는 일본이 추천한 사람을 재정고문으로 맞아 재정에 관한 것은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 협약에 따라 일본의 대장성(大藏省 — 한국의 재무부에 해당)의 현직 국장인 메가다 다네마로오(目賀田種太郎, 1853~1926)가 재정고문으로 왔다. 그는 일찌기 하바드대학을 졸업한 자로 법률, 재정에 정통하였을뿐 아니라 측량에도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1839년 주세(主稅)국장 때 오키나와 현(縣)에 임시토지사사무국을 설치하고 그는 이 사무국 총재를 겸하였으며 토지조사, 지가산정등 업무를 완성한바 있다. 토지측량은 육군측량본부에 위촉하여 근대식 삼각측량법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는 한국보다 먼저 시행한 대만 토지조사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을 표시하였고 “지도를 만들어 면적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메가다는 화폐개혁, 재정관계 개혁에도 관여하였지만 1905년 탁지부(度支部)안에 양지학교(量地學校)를 설치하고 일본에서 측량기사 쓰스미 게이쥬(堤慶藏)를 초빙하여 측량교육을 실시하였다. 쓰스미는 양지학교에서 일년 남짓 가르치다가 한국에서 사망하였는데 메가다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다.

1906년에는 대만에서 토지조사측량을 행한 구마다 신타로(熊田信太郎)를 초빙하여 메가다의 지시에 따라 양지학교에서 측량기술자를 양성하였고 토지조사의 계획을 세웠다. 구마다도 1942년경 70여세의 고령으로 한국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 양지학교 졸업생은 일인 기술자의 지도하에 곧 측량에 착수하였다. 전국토를 측량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1908년을 전후한 일이다. 이 때 용인군 관내가 선정되어 측량이 되었고 부아산에 삼각점을 설치하여 지적도를 만드는 세부측량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구소삼각(舊小三角)측량지역이라고 하는데 이를 시행한 지명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 始興, 金浦, 喬洞, 陽川, 江華, 振威, 安山, 陽城, 水原, 龍仁, 南陽, 通津, 安城, 竹山, 廣州, 仁川, 陽智, 果川, 富平

慶尙北道 : 大邱, 高靈, 淸道, 永川, 玄風, 慈仁, 河陽, 慶山.

1910년 8월 29일 일제는 조선을 합병하고 한달 만인 9월 30일에 조선 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관제를 공포하였다. 이 때부터 시작하여 1918년 11월 5일 임시토지조사국 관제를 폐지할 때까지 8년 1개월동안 위 지역 이외의 전 국토의 측량을 실시하였다. 폐국 후에도 4개월동안 잔무를 처리하고 1919년 3월에 모든 업무를 끝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20,406,489 원이고 종사인원은 5,666 명으로 이 가운데 조선인 직원은 약 8할을 점하였고 이 토지조사를 위하여 제정된 법규만도 7개나 되었으니 이 사업이 얼마나 방대하였던가는 짐작이 간다. 이렇게 하여 한국 전 국토(임야는 나중에 하였음)의 지적도가 된 것이다.

이 때 용인지방은 구한국 때 이미 측량한 지역으로 제외하였지만 인접지 측량을 위하여 삼각측량을 하였는데 부아산 삼각점 자리를 다시 관측하였다. 원점이 달라 이 때 나온 좌표는 먼저 것과 다른 것이다. 말하자면 두 얼굴을 가진 삼각점인 것이다. 먼저 시행한 측량지역을 고초(枯草)지역, 나중의 것을 통일원점지역이라고 한다.

측량교육은 용인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 1895년에 민 영환(閔 泳煥, 1861 ~ 1905)이 서울에 흥화학교를 세웠다. 민 충정(忠正)은 34세의 젊은 나이로 특명전권대사로 임명 받아 미국, 영국, 화란, 오스트리아, 독일을 거쳐 페테르그라드(레닌그라드를 말함)로 가서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석했다.

그는 외국을 다니는 동안 견문을 넓혔을 것이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신식교육을 시켜야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그래서 흥화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실업교육의 하나인 측량을 가르치는 양지과를 창설한 것이다. 양지과 이외에 심상과(尋常科)와 특별과가 있었는데 1900년 황성신문(皇城新聞)기사에 의하면 “再昨日 二時에 興化學校에서 放學式을 집행할 새, 尋常, 特別, 量地 三科 학생수 130餘人이라”한 것으로 보아 양지과 학생도 40명 내외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 흥화학교의 양지과는 한국 측량교육의 효시(嚆矢)이다. 다만 당시의 측량교사는 누구이며 교재와 기간등에 대한 기록을 발견할 수 없어 아쉽다.

민 영환이 순서(殉逝)한 후 임 병환(林 炳恒)이 교장에 백 상규(白 象圭)가 부교장겸 총무교사에 취임하였다. 일제의 사학(私學) 탄압이 심하여지자 1911년에 폐교가 되었다.

민 영환은 한말의 문신으로 순국지사임은 다 아는 사실이다. 민비의 조카로

예조·병조·형조판서, 한성부윤(漢城府尹, 지금의 서울시장에 해당)을 지냈다. 1896년 독립협회를 적극 지원하였고, 1905년 을사보호조약 당시는 참정대신으로 보호조약을 극구 반대하였으나 이를 이루지 못하고 자결하였다. 자결만이 최선의 길이 아니고 살아서 항일을 하여야 더욱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사가(史家)도 있지만 그의 충절은 후대의 찬양을 받아 왔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이 추서되었으며, 그의 묘소는 구성면 마북리 산 36번지(지방문화재 기념물 제 18호)에 있다.

한국에서 최초로 측량교육을 실시한 민 충정의 묘소가 용인에 있고 50년의 전통을 가진 측량 전문교육기관인 지적기술연수원이 같은 용인(용인읍 운학리)에 있다는 것은 또한 기연(奇緣)이라 하겠다.



韓國의 理想的인 선비 十淸軒 金世弼 先生

崔熙冕

十淸軒(1473~1533, 字 公碩) 金世弼 先生은 慶州金氏 十三代 孫으로 연산군 1年(1495)에 式年文科에 及第하여 修撰¹⁾ 持平²⁾을 지내고 甲子士禍³⁾ 때 巨濟島에 유배되었다가 中宗反正으로 풀려나 慶州牧使, 全羅道觀察使, 大司憲, 吏曹參判을 거쳐 謝恩使로 北京을 다녀 왔으며, 己卯士禍⁴⁾ 때에 中宗의 過誤를 諫하다 유배되었다. 晩年에는 忠州 知非 川上에 隱居, 스스로 知非翁이라 號하고 道友 訥齋 朴祥과 唱和하면서 悠悠自適 하였다. 死後에는 吏曹判書에 追贈되었고 시호는 文簡이며, 忠州 八峰書院과 知川書院에 享祀하고 있으며 묘소는 龍仁郡 水枝面 竹田里에 位置하고 있다.

先生이 살으신 시기는 朝鮮朝 士禍期로써 朝野의 士林들이 박해를 당하던 때였다. 燕山君 4年 戊午士禍⁵⁾ 때 先生은 이미 司馬試⁶⁾를 거쳐 式年文科에 급제하여 學問과 人格을 겸비하고 정치 무대에 참여하여 權臣들의 不義와 非理에 屈하지 않는 26歲의 新進 士類였다.

참고로 士禍와 黨爭의 성격을 비교해 보면, 흔히 士禍와 黨爭을 政權다툼으로 同一視하지만, 士禍는 小人輩가 清廉 正直한 士類를 무고하게 박해하는 것이고, 黨爭은 政治人間에 서로 反目하고 偏黨하여 勢力다툼을 하는 것을 말함이다.⁷⁾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같이 先生은 趙光祖를 賜死한 中宗의 잘못을 經筵에서 諫하는 이른바 「立言」⁸⁾으로 奸臣들에 의해 留春驛에 杖配되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義理를 천명하여 是非 歪直을 가리는 데 있었으므로 上이 誣告만 믿고 賜死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中宗實錄 五年十二月條에는 十淸軒 先生의 上疏文이 나오는 바 이 가운데는 政治原理에 關한 詳細하고 격조 높은 內容들이 들어 있는데 이는 靜庵 先生이 올린 陳啓⁹⁾보다 數年 앞선 名文이었다. 七條에 걸쳐서 陳述한 上疏의 內容은 審治體,¹⁰⁾ 敬祭祀,¹¹⁾ 嚴官楯,¹²⁾ 睦宗戚,¹³⁾ 斥私僞,¹⁴⁾ 恤民生,¹⁵⁾ 慎刑獄¹⁶⁾ 등이다.

先生은 당시 慕齊 金安國 先生과 쌍벽을 이룬 學者로 학문과 교육에 重望이 높았었다. 特히, 經學에 밝았으며, 「中庸」과 「周易」에 있어서는 당대 제 1이었다 전한다. 옛부터 進講¹⁷⁾하러 나아갈 때는 책을 맡은 관리가 그날 講

할 부분에 표지를 붙여 미리 나오면, 進講官이 반드시 그 부분의 句讀(구두)와 文義를 예습한 뒤에 講하러 들어가는 법인데, 하루는 관리가 마침 다른 부분에서 표지를 잘못 붙였다. 先生이 同僚와 함께 經筵에 들어가 보니, 충분히 예습한 곳이 아니었는데다가 文章도 어렵고 뜻도 심오하여 동료들은 책을 펴자마자 아연 실색하였으나, 先生께서는 창졸간에 읽어 내려가면서 시원하게 뜻을 풀이하여 조금도 막히는 데가 없었다 한다. 그리고, 陽明學이 전래한 것은 退溪당시라고 하지만 이보다 앞서 陽明學에 對하여도 논평하여 陽明學이란 禪宗의 心學이라 하여 反朱子學임을 갈파한 바 있다.

大概 선비라 함은 「獨善其身」 함에는 철저히 하지만 「兼善天下」의 慈愛를 베푸는 데는 能하기 어려운 것이나 先生은 孝, 悌, 慈의 어느 부분도 소홀하지 않았다. 先生은 또한, 道德으로 一時에 名聲이 높았으나, 文章은 世上에 크게 傳하지 못하여 後人들이 아는 이가 드물다. 그러나 先生의 詩는 여유가 있으면서도, 평이한 것을 주로 하였고, 마음대로 文章을 구성하여 조금도 걸림이 없었다.

이렇듯 十淸軒 先生은 學問과 識見과 德行이 높은 道學者이며 經世家이시었다. 先生은 전 생애를 통하여 그 행적과 말씀과 心法에 있어 永遠히 滅하지 않는 韓國의 이상적 선비像을 드러내셨으니 李澤堂¹⁸⁾이 「古人之所謂三不朽¹⁹⁾者, 先生殆備矣」라 한 것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 하겠다.

아무리 나라가 富強하고 住民生活이 윤택하다 할지라고 참되고 正義로운 선비가 없어서 사회의 紀綱이 문란하고 무질서하다면, 國家將來를 결코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날 義理를 버리고 實利만 追求하는 現代社會에 있어서 社會正義와 健全한 教養을 回復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緊切한 課題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先生의 詩 몇수를 소개 하고자 한다.

一 次龍門寺住持義宗詩軸韻 一

我家忠驪間 遠目窮日下 修眉露晴雲
 月魄疑新破 指點是龍門 仙區隔烟火
 一就羽翰微 飛騰事可眇 今夕是何夕
 蛻穢同蟬夏 寶坊踏層巔 接裾棲霧者
 浩劫一話殘 長空飛鳥過 成衰況無端 悠悠看變化

一 용문사 주지 의종의 시축 운에 차하다. 一
 나의 집은 충주와 여주 사이
 지는 석양 아래서 먼 눈치로 바라보네

수미산이 구름 갠 하늘에 드러나니
 월백이 다시 깨졌나 의심되누나
 멀리 가리키는 곳 바로 용문사인가
 신선이 사는 곳 속세와는 떨어진 곳이네
 한 번 깃과 날개를 붙이니
 하늘에 날으는 일 두려워할 만하네
 오늘 저녁은 무슨 저녁인가
 더러운 허물 벗으니 여름 매미와 같구려
 사원의 높은 산마루를 밟으니
 옷깃이 안개 속에 사는 자와 맞닿았네
 영겁이 한 번 대화에 쇠잔해지니
 하늘을 나는 새가 지나가는 것 같네
 더구나 성쇠의 변화가 무상하니
 유유히 변화만을 지켜 볼 뿐이랴오.

— 題月精寺 —

秋旻正蔚藍 行雨洗塵驂 幽壑喧新浪
 懸崖捲宿嵐 諸天曾會法 千佛各開龕
 異境堪登賞 知字也不慚

— 월정사에 쓰다 —

가을 하늘은 똑같이 푸른데
 지나가는 비는 참마의 먼지를 씻어주네
 깊은 구렁은 시끄럽게 새로 물줄기를 만들고
 높은 낭떨어지엔 묵은 아지랑이 맑게 거뒀네
 체천은 일찌기 회법을 하여
 천불은 각각 감실(龕)을 열었네
 이경에 등림하여 구경해 보니
 이름난 곳으로 알려진 것 부끄럽지 않네

失題(一)

不學眞卿書乞帖 何勞靖節種南山
 故人誠惠知難謝 任見荆釵解慍顏

제목없이(一)

진경²⁰⁾의 걸미첩²¹⁾을 배우지 않았는데
 남산에 국화 심던 도연명을 배워 무엇하리
 친구가 보낸 선물 사례할 길 없지만은
 그로하여 웃음짓는 아내 얼굴 보았다네

失題(二)

半生風雨與塵埃 不分江堂笑語開
 勝事園林何氏宅 少陵人去首空回

제목없이(二)

반평생을 비 바람 티끌속에 살았기에
 강가 집에서 애기하고 웃는 것도 몰랐다네
 원림의 뉘 집에서 좋은 잔치 한다던가
 두보는²²⁾는 떠났는데 돌아다만 보아지네

- 주: 1) 이조때 弘文館의 正六品벼슬로 서적을 편집하여 찬술.
 2) 이조때 사헌부의 正五品벼슬.
 3) 연산군이 왕권을 전제화하려고 殿臣과 사림세력을 숙청한 사건.
 4) 중종 14년(1519)에 일어나 사화로 수구과가 이상정치를 주장하던 신진파(조광조, 김경등)를 賜死, 유배시킨 사건.
 5) 弔義帝文(김종직이 지은 세조를 비난하고 단종을 추모하는 글)을 사초(史草)에 올렸다가 士林이 죽음을 당한 사건.
 6) 이조때 과거의 하나로 일종의 자격시험(생원과, 진사과).
 7) 士禍者 小人之害 士類 固其宜也, 黨論則 士類自相爭(黨議通略屬論)
 8) 후세에 모범이 될 만한 의견을 세움. -三不朽중 하나.
 9) 입금에게 사리를 베풀어 아뢰.
 10) 정치하는 本體를 밝힘(헌법정신).
 11) 종묘를 받들어 宗族의 根本을 망각함이 없어야 함(국민 도의, 종교적 신성성).
 12) 姻婭 戚屬의 사사로운 정치감성 배제.
 13) 宗戚間 憐愛하여 인심을 감동케 함.
 14) 국사는公私의 구별이 엄격해야 함.
 15) 백성들을 공훈히 여겨 함부로 생업을 해쳐서는 안됨.
 16) 인권을 보장하고 형벌을 삼감.
 17) 입금앞에 나가 글을 강론했음.
 18) 文靖公 李植(1584~1647).
 19) 三不朽: 春秋左傳에 전하는 말로 立德, 立功, 立言.
 20) 顏真卿: 唐의 玄宗때 충신이자 이름난 서예가.
 21) 안진경이 쓴 法帖의 이름(乞米帖)
 22) 杜雨(712~770, 字 子美): 중국의 시가문학사상 가장 우수한 詩聖으로 社會詩를 주로 썼음(三吏, 三別).



〈假說〉

龍仁은 初期百濟의 古邑이다.

李 仁 寧

1. 고대국가의 변천과 용인

용인은 백제 온조(溫祚)의 위례성(慰禮城) 도읍설을 새로이 규명하거나 수정해야 할지 모르는 고대 초기백제의 발생지이거나, 또는 백제의 건국을 뒷받침한 고읍(古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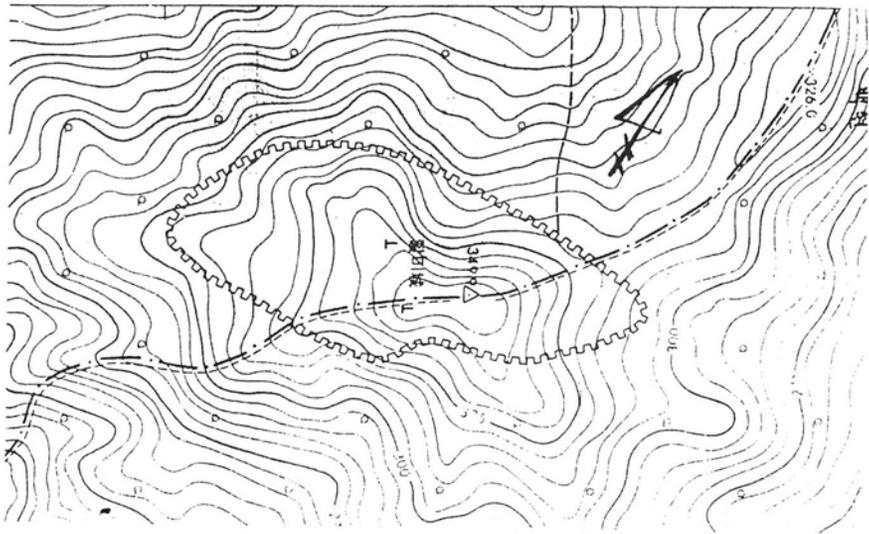
온조의 위례성 도읍설을 놓고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 위치를 지금의 직산설(稷山說), 또는 광주설(廣州說)과 한강 부근설 등으로 비정(比定)한바 있는데 대개의 학자들은 이 중에서 한강 부근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하남(河南) 위례성을 광주 고읍으로 비정하고 동시 하북 위례성 도읍설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 학계의 실정이다.

온조의 건국 설화를 토대로 한다면 온조가 패주와 대주의 두 강을 건너, 미지를 개척하여 立國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바로 그 입국의 디딤돌 구실을 한곳이 용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가정이다.

온조가 형 비류와 함께 남래(南來)하여 비류는 미추홀(인천)에 건국하였고, 아우 온조는 위례에서 즉위 하

는데, 이 당시, 즉 삼한시대 말기, 용인 주변지역의 형세를 살펴보면 동쪽에는 이천(利川)의 자리모로국(咨離牟盧國)이 있었고, 서쪽으로는 수원의 모수국(牟水國)이, 남쪽에는 양성(陽城)의 신분활국(新慎活國)이, 그리고 북쪽으로는 백제국(百濟國)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 중에서 백제국(百濟國)은 광주와 용인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首部 지역이 한강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어 온것이 종래의 통설이었으나 백제국의 수부지역은 한강 근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용인, 즉 구성면 동백리 일대에 자리잡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한강 이북지역은 강력한 고구려, 말갈, 대방등이 자리잡고 있었으므로 그 예각을 벗어난 이곳이 가장 유력한 안전지대이며, 또 이 당시에는 용인과 광주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볼때, 전략상 비중이 가장 큰 이지역을 택해 수부지역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뿐만이 아니라 東栢里, 白峴 등과 같이 栢, 白등의 지명이 전존하고



(말머리 모양(馬首形)으로 생긴 동백리의 할미산성 1/5,000 지도의 표시)

우연한 것으로 지나쳐 버릴 수 만은 없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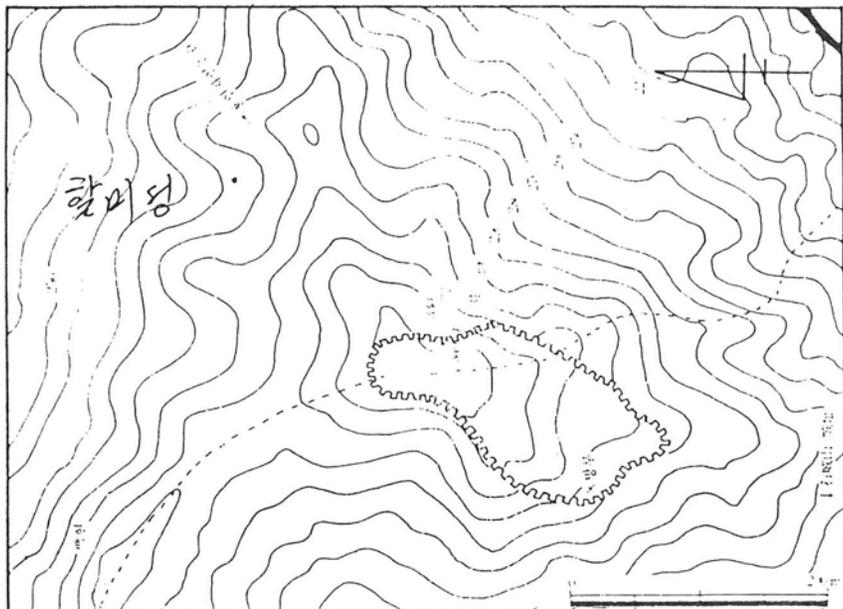
이곳을 온조초기 도읍설의 기사에 대입한다면 기타 용인지방에 산재된 土城에 관한 연원적인 문제의 실마리가 풀린다. 즉, 이곳에 도읍을 정하고 난 온조는 B.C 11년 “그 북쪽에 마수성(馬首城)을 축조하고 병산책(瓶山柵)을 세웠다”고 하였는데 학계에서는 아직 그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온조가 축조하였다는 마수성은 오늘날 용인의 마성(馬城) 또는 할미성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삼가리 궁촌 부락의 정북쪽에 위치 하므로써, 백제 본기 온조왕조의 기사 내용과 일치하며, 이 성을 馬首

城이라고 한것은 성의 형태가 꼭 말머리(馬首)의 모양과 같다고 하여 생긴 이름인 것이다.

필자가 즐겨 내고장 용인 유물유적편을 집필할 때 현지 답사에서는 물론 5000 분지 1 지도에 표시된 성의 형태에서도 이 성의 모형이 말머리와 같이 축조 되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이 성은 B.C 11년 온조에 의하여 축조된 것이며, 포곡면 영문리의 마성(麻城)부락이란 지명도 본래 馬城에서 유래된 것이며, 이 성이 속칭 할미성으로 불리우고 있는 것은 마수성이→마성으로, 또는 마고선인(魔姑仙人)이 쌓았다고 하여 마고성(魔姑城)으로 불리웠으며 이것이 의



경기도 백제 유적지 실측도(한양대학)

역되어 “할미성”이 된 것이다. 고구려가 이 지역을 강점하고 이를 구성현(駒城縣)으로 하였던 것도 “미수성” 또는 “마성”에서 기인된 것임이 틀림없다. 즉 말(馬)을 망아지(駒)로 바꾸어 놓는 장난기를 부렸을지도 모른다는 해석이다.

또한 이해에 병산책을 세웠다고 한 것은 단순히 한 지역에 병(瓶)모양의 산책(山柵)을 세운 것으로 해석할 수만은 없다. 즉, 용인읍 궁촌(삼가리)에 도읍한 온조는 이곳을 중심으로 하여 남사, 평택 지방의 곡창지대에 접

한 남쪽 관문에 토성(處仁城)을 쌓았고 동쪽의 곡창지대에 접한 관문에 행군이 토성(84년 6월 필자, 정양화 발견)과 퇴미산 토축(84.9. 정양화 발견)을 쌓았고, 동북쪽 관문인 내사면 대대지의 속칭 무장골(武將谷)에 토축을 신축하면서 수부지역인 궁촌을 보위하기 위한 위주 방어선을 구축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상의 토성 이외에도 전진방어 기지로서 광주나 루에 몽촌토성을 구축하므로써 적대국과의 분쟁에 대비한 것이 된다.

그후 B.C 8년 독산책(禿山柵) :

용인의 서남쪽, 지금의 독산산성?)과 구천책(狗川柵 : 용인의 서북쪽?)을 구축하여 주변 국가와의 분쟁에 대비하였던 것이다. 필자의 출저 용인의 유물유적편에 기술된 처인성이 백제때의 토성이라는 설이 있다고 인용한 것은 1979년 이 성을 복원할 때 사학자 이선근 박사 일행이 현지를 답사한 후 몽촌토성에 비유하면서 백제때의 토성임을 시사했던 점으로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1984년 필자 일행이 발견한 행군이 토성에서는 처인성 복원 이전의 형태와 많은 유사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 필자는 이를 “처인성과 견주어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용인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했다.”고 출저인 유물유적편에 기술한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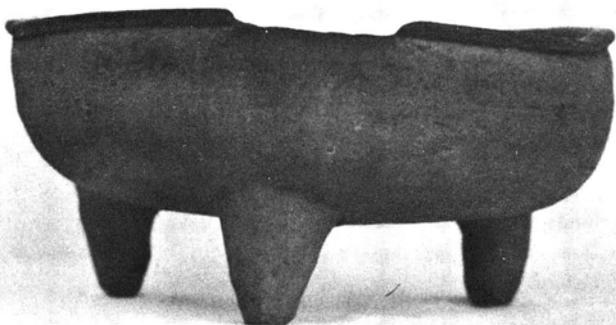
또한 대대리 무장골의 토축은 양주, 경안, 이천 방면에서 침입할 수 있는 말갈, 또는 대방국과의 분쟁에 대비한

방위선으로 볼 수 있겠으며, 이러한 일련의 토축, 토성등은 용인의 궁촌을 중심으로 하여 그 외곽지대에 설치되어 있음으로서 토성이 축조된 성격과 가치성 등이 확연하게 규명될 수 있는 것이다.

필자의 연구결과로서 궁촌을 중심으로 사방에 축조된 토성, 토축은 모두 백제시대의 것이며, 이를 백제의 초기 고읍에 대입하지 않고는 달리 그 성격과 존재 가치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 잔존하는 이곳 주변의 정황들이 초기 백제 건국의 터전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또 문헌의 기록과도 일치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서 이것이 우연만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제3설인 서울 부근설이 강력하게 뒷받침 되는 것이다.

또한 백제의 고읍으로서 일련의 죽



(부아산 아래에서 발견된 바 있는 백제 초기의 삼족토기)

적이랄 수 있는 연질의 삼족토기가 부아산 아래 근처의 전담에서 출토되었고 또 백제 초기, 삼한시대 말의 것으로 판명되어 간접적으로 백제의 고읍설에 보충적인 자료가 되고 있다.

그후 B.C 6년 <왕의 어머니가 죽고 말갈 등의 외침과 괴변등으로 친도할 것을 결심한 온조는 한산 밑으로 나아가 성책을 세워 마한에 친도의 사실을 알리는 한편, 비로소 강역을 정하였는데, 북은 패하(溟河)에 이르고 남은 웅천(안성천)에 이르며 서쪽은 대해(서해)에 닿았고, 동은 주양(춘천)에 이르렀으며, 이듬해 한성으로 옮겨갔다고 하였다>, 이상의 기사에서 한산밑→한성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볼 때, 용인의 궁촌에서 출발된 것이라야 자연스러워 진다.

그러나 백제가 고대식 국가 체제를 갖춘 시기를 제 8대 고이왕 시절로 보고 있는바, 온조조의 이 기사는 고이왕 시대의 사실이 온조시대로 소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견해이나, 백제의 강역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용인을 중심으로한 진한의 전지역을 잠식하여 오늘날의 경기 일원과 강원 일부 지역을 제압할 수 있기까지, 최소한, 용인을 도약대로 하여 성장했을 것이며, 이러한 토대는 온조가 궁촌에 도읍한 이후 기존의 백제국(伯濟國)에 영향력을 부식하여 그 수장이 된다음, 때마침 위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던 낙랑과 대방이 한강유역을 경략해 오자,

이에 증압을 느껴오던 한강 유역의 여러 부족국가들이 이의 대응 체제를 갖출 필요성이 긴박해짐에 따라 군사, 지리적으로 비중이 가장 큰 위치에 있던 백제국(伯濟國)이 동맹국의 맹주 역할을 맡으면서 추종 부족국가를 통합한 후, 온조 도읍당시의 지명이던 백제(伯濟)를 國名으로 하였다가 한성으로 친도하면서 百濟로 성장한 것은 아닌가?

어쨌든 “백제”는 초기 부족국가시대의 지명이었을 것이라는 점은 학계의 공통적인 견해인 바, 온조 남래(南來) 이전의 伯濟는 광주를 포함한 용인이며, 구성면 동백리가 그 중심 지역이었고, 온조가 자리잡은 최초의 도읍지는 부아산 아래의 궁촌이었으며 용인 일원에 산재한 석성, 토성, 토축들은 대개 이 시기를 전후해서 축성되었을 것이라는게 필자의 견해이다. 따라서 용인은 적어도 B.C 18년부터 B.C 6년까지 최소 12년여 또는 고대식 국가체제를 완성한 고이왕 시대까지, 용인은 백제의 고읍이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이것은 필자의 황당무개한 괴변이라해도 좋겠지만, 우연치 않은 이 지역의 정황들이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들이다.

2. 용인 지명과 행정구역의 변천

위나라 영향을 받고 있던 낙랑과 대방이 한강유역을 경략하자 한강 유역의 여러 부족국가들은 이에 대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나 이들 국가의 맹주 역할을 하던 목지국(目支國)의 지배력이 약화되어 있었으므로 일선에 위치하고 있던 부족국가들 중에서 백제국(百濟國)이 목지국을 대신하여 그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때마침 남래(南來)한 온조는 부아산 아래 궁촌에 도읍을 정하고 백제국(百濟國)인 광주, 용인을 장악, 즉위하면서 진한의 여러 부족국가들을 평정하고 백제(百濟)를 건국하여, 고구려에 이어 두번째로 삼국의 기원을 이룩한다. 그후 백제는 제 8대 고이왕(古爾王)에 이르기까지 3백여년 동안, 고대식 국가체제를 갖추워 나가는 과도를 거치면서 주변국가인 말갈, 낙랑, 고구려, 그리고 후발국가인 신라등과 끊임없는 분쟁과 쟁탈전을 치루노라 극히 완만한 국가 성장추세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백제는 고이왕 이후에도 고구려와의 분쟁을 계속하여 일진일퇴를 거듭하던중 백제는 근초고왕(近肖古王)때인 서기 371년, 고구려의 남진 기지인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故國原王)을 전사케 하는 전과를 올리므로써 맹렬한 위세를 나타내 보이

기도 하였으나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구려 백성들은 백제에 대한 절대적 감정이 누적되어 설욕의 기회만을 엿보다가 고구려 제 20대 장수왕 63년 을묘년(서기 475), 장수왕은 3만의 대군을 이끌고 남정하여 백제 왕도인 한성(서울)을 압박 하였다. 이에 위급을 느끼게 된 백제의 개로왕은 태자(문주왕)를 신라로 급파하여 구원병 1만을 요청하였으나 불행히도 원병이 도착하기전 아단산성(阿且山城:현 위커했 일대)에서 잡혀 죽임을 당하였으나 이로써 고구려는 100여년전 백제에 의하여 치욕을 당한 고국원왕의 한원을 씻은셈이 되었지만 백제 측에서는 치명적인 위축을 당하게 되는 전기가 된다.

즉 개로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문주왕은 즉위 하자마자 국도를 웅진(熊津)으로 옮긴 후, 그곳의 천험적 지리와 호남, 호서 평야지대를 근간으로 하여 국력을 회복한 후 부왕에 대한 복수의 기회를 다짐하고 있었으나 왕권의 쇠퇴를 틈탄 해구(解仇)의 모반으로 시해 당하므로써 고구려의 응징을 실현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아단산성에서 크게 승리한 고구려는 그 여세를 몰아 한성을 위시하여 한강 유역을 유린하고 미수성을 점령한 다음, 백제의 구도읍지인 용인 깊숙히까지 두려부신 후, 한수 이남의 백제 강역(안성천 유역, 아산만까지)을 자국의 영토로 예속 시키면

서 고구려는 중앙집권적 군현 제도에 따라 용인 지역을 구성현(駒城縣)으로 명명 하므로써 용인은 비로소 현치 원년을 기록하게 되며, 이의 사실이 삼국사기에 의하여 밝혀지게 된다.

고구려가 한강 유역과 백제의 구수도권역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 체제를 구축해가고 있는 동안, 백제는 내외외환의 와중에 휩싸이다가 웅진 천도후 60여년만인 서기 538년, 백제 성왕은 국도를 다시 사비(泗水)로 옮겨 감으로서 용인은 완전히 백제의 영향권역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수도를 옮긴 백제의 성왕은 안으로는 안정을 꾀하면서 밖으로는 신라와 혼교동맹을 맺는 등 활발한 외교활동을 벌이면서 국력 신장의 기반을 다지게 된다.

이 무렵 신라의 변장(邊將)이 고구려에 의하여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신라와 고구려는 오랫동안 유지되던 동맹관계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중압을 느끼게 된다. 이를 계기로 신라는 백제와 공동 운명체적 연대감이 형성되어 고구려의 위협에 대처해가는 동맹국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던중 서기 551년 백제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은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북벌을 감행하는데 백제는 용인지방을 위시하여 한강 하류의 남·북한성의 6군을 수복하였고, 신라는 죽령(竹嶺)이북 고현(高峴)이남의 10군을 차지하므로써 용인지방은 백제 개로왕 이후, 실로 76년만에 백제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三韓時代の 龍仁 比定圖>

그러나 백제는 2년여가 흐르는 동안에도 이지역에 대하여 강력한 통치력을 구축하지 못했음으로 용인의 연혁적 측면에서 참고 될만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못한다.

이때 신라는 이천군에 남천현(현 이천군 마장면 오천리)을 설치하고 한강 권역에서 영향력을 부식하기에 은근한 힘을 쏟다가 장차의 북벌정책 수행상 한강유역을 확보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됨에 따라 신라, 백제와의 친교와 우호동맹 관계를 파기하면서까지, 백제가 수복한 한강유역의 남·북한성 6군마저 탈취하고 한성(광주)을 중심으로 신주(新州)를 설치한다.

이때가 서기 553년, 즉 신라 진흥왕 14(백제 성왕 31)인데 백제는 실지를 회복한지 불과 2년여만에 한강유역의 요지를 다시 신라에게 내어주게 되었고, 따라서, 용인지방도 신라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연이 맺어지면서 삼국이 통일 될때까지 신라의 영토로 지속된다.

한편 한강유역과 백제의 6군을 자국의 영토로 확장하게된 신라는 그후 당항포(남양만)를 개설하고, 중국 육조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삼국통일의 발판을 굳히면서 국력의 신장을 거듭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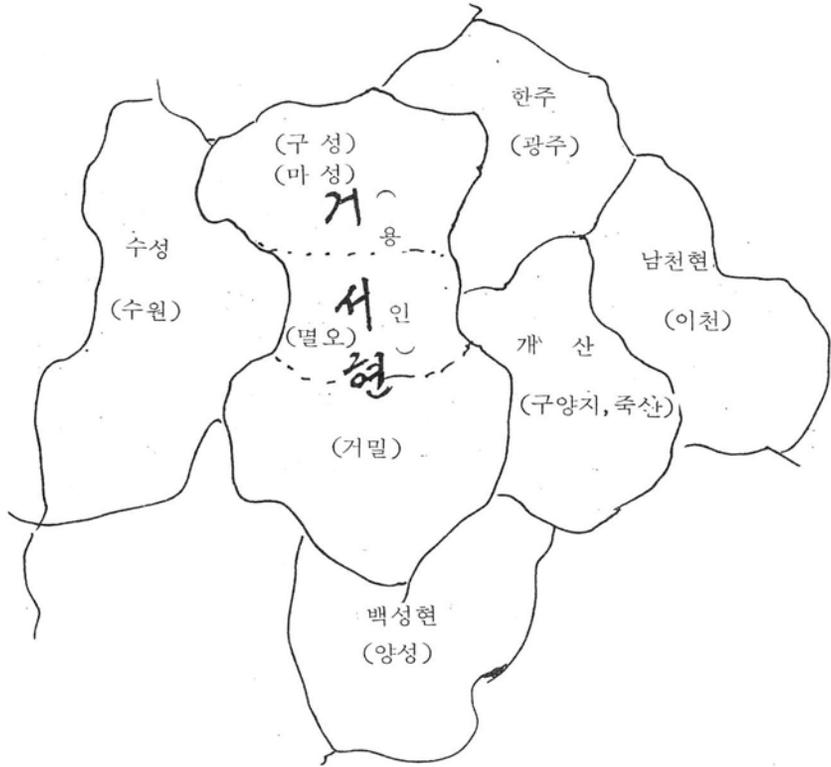
서기 568년, 신라 진흥왕(29년)은 이천에 남천정을 설치하고, 강력한 행정 기반을 구축하였다.

한편 백제는 신라를 여러번 침공하

여 응징하려 하였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양치 못하고, 또 신라와 고구려의 침공을 받는등, 시련을 겪다가 의자왕때인 서기 642년 대병으로서 신라를 공격하여 서변의 40여성을 함락시키고, 고구려와 더불어 당항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이것으로서 백제는 국운이 끝나가는 시기로서 최후 최대의 전과를 거두는 셈이지만, 그로부터 16년후인 의자왕 20년(서기 660) 신라에게 항복하였고, 668년 라당 연합군은 고구려의 평양성을 함락시키므로서 통일신라를 이룩하게 된다.

그런데 신라 진흥왕 14년으로 부터 제 30대 경덕왕 16년(서기 757)에 이르기까지의 204년여 기간동안 용인은 대개 마성현(馬城縣)으로 불려지다가 경덕왕에 의하여 전국의 행정구역이 재정비 될때, 백성(白城 : 안성) 접경이던 거밀현과 구성현을 합쳐 거서현(臣黍縣)으로 고치고 한주(漢州)의 영현으로 하므로서 신라의 군현제도에 의한 본격적인 현치가 이루어졌다. 그 후 신라가 망하고 고려태조가 즉위하게 되자 서기 940년(고려태조 23년, 경자) 3월 경주를 대도독부(大都督府)로 하고 전국의 州·府·郡·縣의 명칭을 대대적으로 고칠때 신라 통치 시절의 구성을 고쳐 용구현(龍駒縣)이라 하였으며,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태종 13년인 1413년 용구와 처인 두현을 합쳐 용인현이라 하



통일신라 시대의 용인(거서현) 比定圖

였다가 갑오경장 이후인 1896년(고종 32) 충주부로 하였고, 1914년 양지군과 합쳐 용인군이 되었다.

이상의 개관을 연표로 정리하면 용인행정연혁의 변천사를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용인개관연표

연대	주요 사항
B.C18	온조 궁촌 도읍?
B.C11	마수성 축조?
B.C 6	온조 한산 천도.

연대	주요 사항
371	백제 근초고왕. 고구려 평양성공격 고국원왕 사살.
475	고구려장수왕 63. 백제 한성공격, 개로왕 살해, 용인, 고구려 영토예속, 구성현명명, 백제 문주왕즉위, 웅진 천도
538	백제 성왕, 사비성 천도
551	백제 성왕 29년, 고구려 공격, 실지(구성현)화복
553	신라 경덕왕 14년, 백제 6군(용인포함)장악, 구성(마성)거밀통합, 거서로 고침
940	고려 태조 23 경자, 거서를 용구로 고침
1413	조선 태종 13. 용구, 처인통합, 용인현으로 고침.
1895	고종 32년 충주부 용인군
1896	고종 33 경기도 용인군
1914	양지군 통합

3. 용인의 옛이름에 대하여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용문회지>에 특집으로 기고된 홍순석의 <용인의 옛이름에 대하여>란 장황한 논조를 짚어 보기로 한다. 홍순석이가 일가견을 피력한 상기 <특집>은 84년도에 향토문화연구 씨리즈물을 기획하면서 필자가 정리한 <용인군 행정연혁 및 유래>라는 연구 자료를 보고 착상해 낸

것으로 보인다.

D대학 국문학과 교수의 직함으로 장식된 타이틀은 예의 학구적인 논리로 전개된 것 같지만, 기실 필자의 연구자료집을 도마에 올려놓고 보잘것 없는 것으로 요리하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된 것임을 밝혀두고 싶다.

왜냐하면 <용문회지>에 기고된 내용은 지난해 <용구문화>를 통해서 발표하려다가 여건상 유보되었던 것이었는데, 금년 3월 필자가 <내고장의 얼> 유물유적편을 펴내면서 교수님이 쓰신 내고장의 얼 <인물편>의 내용중 묘지 위치가 잘못되었거나 용인에 없는 사람이 있는것 등으로 잘못된 기술된 몇가지를 지적, 정정한 것에 대한 보복적 기고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좌우간 그것이 의도적이건 아니건 또 보복이건 아니건, 처음부터 나는 연구자료의 서문을 통해서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하여 <유래>라고 하는 단서를 붙인다고 하였고, 오류가 있다면 누구든 내 뒤에서 그것을 바로잡아 달라는 부탁도 곁드려 놓았으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방하다.

그러나 향토문화를 연구하는데 있어 대학에 몸담고 계신 홍순석 교수님?의 주장만을 절대적으로 완벽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차의 입장이거나 밝혀두고자 한다.

첫째 답습론이다.

홍순석은 <용문회지> p 35에 “아무런 논의없이 답습해온 향토사”라고

전제하여 「무식한 놈이 함부로 글을 쓴다」는 식의 암시를 던지면서 p 36에 “기존의 업적을 돌이켜 보자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하여 필자를 겨냥한다. 그러나 필자가 쓴 행정연혁 연구자료집이 답습된 것 인지에 관해서 알아 보려거든, 내가 쓴 것 말고, 그 이외에 어떤 자료가 있었는지를 밝혀 두었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만큼이나 체제를 갖추어 놓은 자료는 필자에 의해서가 그 최초였음을 어찌랴.

그럼에도 이를 <답습>으로 규명한 것 자체부터가 불순하다.

문헌을 참고한 것도 대학에서는 답습이라고 하며 또 논리가 없었다는 말은 대학교수가 아니면 향토분야를 연구할 자격이 없다는 소리인가?

둘째, 선생이 아니 교수님이 참고하셨다는 문헌이다.

교수님이 용인의 옛이름을 살펴보기 위하여 수고하셨다는 문헌은 대개

- ①삼국사기 지리지 ②고려사 지리지
- ③세종실록 지리지 ④동국여지승람
- ⑤대동지지 ⑥동국여지 등으로 자못 6 ~ 7가지나 된다.

그 가짓수나 종류로서는 다양하고 방대한 것처럼 나열되었지만 삼국사기 이후 간행된 고려사 지리지 이하 기술된 내용은 거의 같은 것으로서, 시대별로 당시대의 내용이 약간씩 첨삭되었거나 글자의 앞뒤를 바꾼 것 등이며, 처음 <삼국사기>의 것을 고려

시대 사람이, 조선시대에는 삼국사대의 것과 고려의 것을 참고로 하는 식의 내용임으로 이중 한두가지만 참고하더라도 행정연혁쯤 기술하는 데에는 하등 부족함이 없다.

그럼에도 선생은 삼국사기를 포함, 내가 참고하였다는 야사류, 즉 <연려실기술> 정도의 문헌을 두고 “따위”로 규정하는 따위로서 덜 학구적이며 아주 빈약한 지식의 바탕 위에서 작성된 것처럼 애써 호소하고 있다.

셋째, 이상 6 ~ 7가지의 문헌에 수록된 내용의 해석이다.

먼저 삼국사기부터 유의해 보자.

- ① 거서현 : 본 고구려 구성현. 경덕왕 개명. 금용구현 ... (삼국사기)
 - ② 용구현 : 본 고구려 구성현. 일명멸오현 신라 경덕왕 개명 거서 ... (고려사 지리지)
 - ③ 용인현 : 용구현. 본고구려 구성현. 신라 개명 거서 ... (세종 지리지)
 - ④ 용인현 : 용구현. 본 고구려 구성현(일명 멸오) 신라 경덕왕 개명 거서 ... (여지도서)
 - ⑤ 용 인 : 본 백제 멸오. 후 개구성 신라 경덕왕 16년 개명 거서 ... (대동지지)
- 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드시 용인의 옛이름에 관한 기사는 거의 같은 내용이나 시대별로 인용되고 첨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홍순석이가 가장 큰 이슈로 내걸고 있는 것은 멸오가 백제때 지명으로서

용인의 옛이름이 “멸오→구성→거서”의 순으로 불리워졌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문헌은 최근세 고종년간(1864)에 간행된 김정호의 ⑤대동지지 하나 뿐이다. 그런데 교수님은 “멸오는 백제 때의 지명이 분명한데(필자가) 고구려 점령 당시의 명칭으로 생각한 자체가 큰 오류이다”라고 목청을 뽑고 있다.

그렇다면 ⑤의 김정호 보다 훨씬 이전시대에 간행된 ①②③④ 문헌의 내용에 없는 것을 후세 사람이 “백제 때의 멸오”라고 단 한마디 내뱉은 것 때문에 기고만장 했다면, 그리고 그것으로서 나를 궁지로 몰았다고 꾀재를 불렀다면, 그건 좀 이르다. 왜냐하면 이보다 훨씬 앞서 간행된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는 용인 군명(郡名)을 “구성→멸오→용구→용인”의 순으로 분분명명하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인데 교수님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어쩐일로 이에 관한 언급은 누락 시키셨는가? 이래도(내가) 고구려 점령 당시의 명칭으로 생각한 자체가 “큰 오류”라고 빈정거릴 수 있으신가 말이다.

이의 표현도 ⑤ 본백제멸오, 또는 ⑥ 본백제지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으로 해석에 따라서는 홍순석이처럼 “백제의 멸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뒤집어 놓으면 “멸오는 백제의 땅, 식으로 풀이할 수 있음으로 행정연혁측면에서 <멸오>를 백제 때의 행정구역 지

명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말하자면 내가 기술한 “행정연혁”을 지명풀이 쪽으로, 다시 말해서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에게 자칫, 그 방면으로만 해석이 가능했던 것인지는 모르겠다.

넷째, 용구에 관해서다.

홍순석이는 이병선, 신태현 교수님이 문자풀이한 <지명연구서>를 인용하면서 “구성은 멸오와 같은 뜻으로 전자는 훈독(訓讀), 후자는 음독(音讀)을 이용 표기한 것이다.”라고 애써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백제 때의 까마귀를 고구려에서는 망아지라고 했다는 우수운 풀이다.

어쨌거나 “멸오”를 음운으로 표기하여 이른바 망아지(駒)로 하였다고 하는 학자님들의 가정적 논리를 가타부타할 입장은 아니나 앞에서 살펴 보았다시피 구성(駒城)은 본래 백제 때의 지명인 *마성(馬城) 또는 마수성(馬首城)에서 유래된 것이며 고구려에서는 이곳의 본래 지명이던 “마다재”를 음운으로 하여 “말아지(駒)”로 하고 마성 또는 마수성에서 “城”자를 인용하여 駒城이라 하였다가 것이 필자의 주장이라면 매맞을 소리는 아닐런지 모르겠으나 어느 것이 사리에 가까운 견해인지 비교해 보기 바란다.

* 구성면 마북리(麻北里)의 麻도 본래 馬, 또는 마성에서 전존된 지명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떡조현”의 유래에 관해서
다.

내가 인용한 유래는 “멸오가 떡조
로 변한 것 같다……그렇다면 고구려
쪽에 의하여 지칭된 기념비적 명칭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라고 하여 소
위 <가정법>을 써서 견해를 피력한것
이었음에도 이를 단정적인 어법으로
“…… 지칭하였다”라고 표현해 놓음으
로써 <가정법> 정도는 능히 알만하신
교수님께서 억지 표현으로 남의 글 내
용까지 멋대로 변조? 하면서 까지 독
자의 인식을 그르치게 하고 있는 것
은 실로 유감이다.

변명 같지만 음사구조로 보아 멸오
가 떡조로 떡조가 메주로 변했으리라
는 추정 짚이야 누구나 얼마든지 손
쉽게 떠올릴 수 있게 되어 있다. 더
구나 유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곳
지명의 여건이 그럴만한 가능성을 충
분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좋다. 그래도 내 표현이 잘못된 것
이라면 홍순석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보기로 한다.

“참고로 떡조현은 가까이 있는 부
아산의 설화와 연관시켜 설명하는 것
이 납득이 간다. 용인에 널리 알려진
설화 가운데 아이를 업고 할아버지를
찾아 나섰다가 변을 당한 며느리 애
기가 있음을 밝혀둔다……
…… <용문회지 p.37>

자화자찬도 이정도면 가관이나, 자
기가 써 놓은 글에 “납득이 간다” 라

고 하면서 내가 써 놓은 글의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엔 그 전설을 한번 간추려 보자.

<나무하러간 시아버지가 호랑이 한
테 물려 죽을 지경일때, 며느리가 아
이를 업고 찾아 나섰다가 이를 발견.

등에 업은 아이를 호랑이에게 내어
주고 시아버지를 살렸다>라는 전설로
써 시아버지를 찾아 다녔기 때문에 竇
祖峴이고 아이를 업고 헤맨 산이로서
負兒山이 되었다 라는 것이 곧 문자
풀이식 납득론이다.

이와같이 요즈음 세상 갈아서는 젓
먹는 아이들도 수궁하지 못할 황당무
개한 픽션물에는 “납득이” 가면서도
내가 피력한 유래설에는 어째서 납득
이 되지 않는지 그 생리적 구조까지는
타할 수 없겠으나 이상 두개의 유
래를 비교하여 어느 것이 논리에 가
까운 표현(유래)인가는 독자 여러분
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그 밖에도 많다. 솔직히 말해서 분
풀이를 하려면 끝이 없겠다. 그러나
홍순석이는 대학에 몸담고 있으면서
칭하여 교수라는 분이고, 그럴만한 견
식과 덕망이 있으신 분이로서 하찮은
내글쫌 나무라고 책망하신것쫌 달게
받아야 할 처지이며 나같은 문외한,
더구나 그 혼한 학위하나 없는 백두
의 미관말직이 언감생심 교수님을 상
대로 글쫌을 논할 입장이 못된다는 것
쫌 잘 알고 있을뿐만이 아니라 오히
려 나의 즐고를 거론 삼아 주신 교수

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해
야 하는것이 당연한 도리일줄 생각하
지만 오로지 고향에 묻혀 온갖 희생
을 감내하면서까지 이 방면의 연구에
분골쇄신하고 있는 우리내 아마추어의
결함. 취약점이나 들춰 내려는 추잡

한 작태에 대하여는 아연실색하지 않
을 수 없다. 기타 짚고 넘어가야할 문
제가 더 있을 수 있겠으나 지면상 유
보하겠거니와 교수님 말씀처럼 “향토
문화”의 정립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주
저없이 필을 잡겠다. (필자학력, 고졸)

양벽정(漾碧亭)에서

조위(曹偉)* 지음
홍 순 석 옮김

적현(赤縣)¹⁾이라 모여드는 곳,
관개(冠蓋)²⁾가 벌집같이 총총하네.
주인은 본래부터 착한 원님여서
한 해 맞도록 징수하는 일 없네.
선정(善政)이 나날이 멀리 전하고,
오고가(五袴歌)³⁾노랫소리 즐겁게 들린다.
의장(意匠)과 신기한 꾀로
빛난 정자 줄지에 생겨나니,
두어 이랑 못을 파고서
창포와 연꽃을 심었네.
시냇물 맑은 줄기 끌어 올 제,
산 언덕을 둘러 왔는데,

* 조위(曹偉, 1454 ~ 1503)는 조선 연산조의 문신으로, 자는 태허(太虛), 호는 매계(梅溪),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으로, 김일손(金駟孫)이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사초(史草)에 올리고자 하였을 때, 원문 그대로 「성종실록(成宗實錄)」에 올리게 한 사람이다. 무오사화(戊午史禍)에 화를 입고, 의주(義州)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 죽었다. 성리학(性理學)에 능하였으며, 글씨도 잘 썼다. 훗날 문장(文莊)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저서로는 매계집(梅溪集)이 있으며, 글씨로 조계문묘비(曹繼門墓碑)가 전한다.

註 1) 적현(赤縣)은 중국에서 서울의 직할 군(郡)·현(縣)을 말함. 여기서는 용인이 서울 인근의 고을임을 말한다.

2) 관개(官蓋)는 높은 벼슬아치가 타는 수레를 말한다.

3) 오고(五袴)는 다섯 벌의 바지라는 뜻으로, 부유(富裕)함을 비유할 때 쓰이는 말이다. 그러므로 오고가(五袴歌)를 부른다는 말은 백성들이 풍요함을 칭송하여 노래한다는 뜻이다. [참고] 廉范守蜀郡 民歌五袴<故事成語考, 文臣>

줄줄 냇물 소리 옥소리 같고
 맑고 깨끗함 구리거울 새로 간듯하네.
 고운 물고기들 꽃다운 먹이에
 물려들어서 필쩍필쩍 푸른 물결 인다.
 누울거리는 녹음 깨끗도 하고,
 늙은 나무들 가지 서로 엉기었네.
 급한 비가 질편한 물을 깨뜨리며,
 은은하게 우뢰를 물고 오니,
 공중에는 은살같은 빗발 빗겼고,
 물 위에는 야단스런 소용돌이 인다.
 맑은 바람이 뜰을 씻어 가고,
 어둠은 저물녘 까마귀를 따라 온다.
 중얼거리던 흥취 한바탕 즐겁고야,
 술자리 오래되어 밤기운 짙어졌네.
 나는 이런 한적함을 사랑하여
 새벽별이 기울 때까지 앉노라니,
 시를 지어 좋은 경치 적으랴 해도
 묘한 시구 음·하(陰何)⁴⁾에게 부끄럽네.

漾碧亭題詩

赤縣走集地	冠蓋如蜂衙
主人古循吏	終歲無徵科
政聲日以遠	欣聞五袴歌
意匠與神謀	華亭生咄嗟
鑿開數畝池	種之蒲與荷
溪流引清派	繚繞來山阿
淙淙環珮響	澹澹銅鏡磨
纖鮮簇芳餌	戢戢跳清波
娑娑綠陰淨	老樹交枝柯

急雨破塊瓦	隱隱驅雷車
橫空萬綠竹	水面生亂渦
清風洗庭宇	暝色隨暮鴉
沈吟付一快	酒闌夜氣多
我愛此閑適	坐到參橫斜
題詩欲紀勝	妙句愧陰何

〈『新增東國輿地勝覽』, 권 10〉

註 4) 음하(陰何)는 육조(六朝) 시대의 유명한 시인인 음갱(陰鏗)과 하손(何遜)을 가르킨다.

남곡기(南谷記)

이색(李穡) 지음

홍순석 옮김



남곡 이석지 사당 현판, 내사면 주북리 소재

용구 동쪽에 남곡이 있는데, 나와 같은 과방(科榜)에 오른 이 선생이 산다. 어떤 사람이, ‘선생은 숨어 사는 것인가.’ 하고 물기에, 나는 ‘숨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였다. ‘벼슬 하는 것인가.’ ‘벼슬 하는 것도 아니다.’ 하니, 그 사람은 매우 의혹하여서 또, ‘벼슬하는 것도 아니고, 숨은 것도 아니라면 무슨 생활인가.’ 하므로 나는 말하기를, ‘나는 들으니, 숨어 사는 자는 그 몸만 숨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름도 숨긴다. 홀로 이름만 숨길 뿐 아니라, 또 반드시 그 마음마저 숨긴다.’ 한다. 이것은 다름 아니고, 남이 알까 두려워하여서 남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벼슬하는 자는 이 반대여서, 몸은 반드시 조정에 서서 현상(軒裳)¹⁾ 과 규조(圭組)²⁾로 빛나게 하며, 이름이 반드시

註 1) 현상(軒裳): 고관이 타는 수레와 관복

2) 규조(圭組): 고관이 지니는 홀(笏)

시 해내(海內)에 소문나고, 문장과 도덕으로써 충실하게 한다. 그런 즉, 그리하여 그 마음에 존양(存養)한 것이 정사에 나타나서, 백성의 노래와 시에 나타나고, 사방에 빛날 것이니, 마음을 숨길 수 있으라. 나는 이것으로써 남곡은 숨을 땅이 아님을 안다. 지금 선생이 남곡에 살면서 밭도 있고 집도 있어, 관혼상제(冠婚喪祭)에 쓰임이 족하니, 세리(世利)에 무심한지가 오래이다. 그러나, 숨었다는 것으로써 자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마다 서울에 와서 옛 친구를 방문하고 한껏 마시면서 담소한다. 왕래하는 도중에는 파리한 아이 종과 여원 말로써 채찍을 세워 잡고 시를 읊조리는데, 흰 수염은 눈 같으며, 붉은 뺨에는 광채가 넘친다. 그림 잘 그리는 자를 시켜 그의 신색을 그리면, 반드시 삼봉 연엽도(三峯蓮葉圖)에 양보하지 않으리라. 남곡은 산에 나무할 만하고, 물에 고기 낚을 만하여, 세상에 요구할 것 없이 자족하다. 산이 병랑하고 물이 푸르러, 지경이 그윽하고 사람이 고요하여, 눈을 들면 심경이 유연하여 진다. 비록 정신으로 팔극(八極)의 끝에 가 논다 하는 것도 이보다 지나지 않을 것이니, 선생이 여기에서 스스로 즐길이 마땅하다. 내 쇠하고 병든지 오래이나, 매양 시골에 돌아가고자 하여도 실행하지 못한다. 밭이 있으나 바다에 가깝고, 집이 있으나 밭이 너무 토박하므로, 두 가지가 완전한 것을 얻어서 나의 몸을 마치는 것이 나의 소망이나 어찌 쉽게 될 수 있으랴. 선생이 정언(正言)이 되었을 때에 나는 간의대부(諫議大夫) 자리를 더럽혀서, 함께 정사를 말하다가 재상에게 미움 받았다. 그리하여, 제공(諸公)은 모두 외직(外職)으로 옮겨졌으나, 색은 홀로 특별한 발탁을 입었고, 지금도 부끄러움을 느낀다. 선생이 여러 번 조정에 왔으나, 지위는 겨우 3품에 이르렀을 뿐이다. 그러나, 끼친 사랑은 백성의 마음에 남았고, 빛난 명성은 물망에 합당하여서, 이씨에게 구하여도 아름다움을 짝할 자가 드물다. 이것은 반드시 추우(騶虞)³⁾가 남곡에 든 것이리라. 다른 날에 큰 계책을 세우고 큰 논의를 결단하여 위로 임금의 치화(治化)를 돕는 것이 제갈공(諸葛公)이 남양(南陽)에서 일어남과 같이 할 것을 기필할 수 있을까, 또한 기필할 수 없을까, 모두 하늘에 달렸다. 선생의 이름은 석지(釋之)이고, 선군 가정공(先君稼亭公)의 문생 급제이다. 일찌기 나와 함께 신사년(辛巳年) 진사과(進士科)에 합격하였다.

龍駒之東有南谷吾同年李先生居之或問先生隱乎予曰非隱也曰仕乎曰非仕也或者疑之甚又問非仕非隱則何居予曰吾聞隱者不獨隱其身又必名之隱

註 3) 추우(騶虞) : 상서로운 짐승

不獨隱其名又必心之隱此無他畏人知而不使人知也仕者則反是身必立朝廷之上而軒裳圭組以華之名必聞海宇之內而文章道德以實之則其心之所存形于政事被于歌詩而灼于四方矣心可隱乎哉予以是知南谷非隱之地也今先生居南谷有田有廬冠婚資祭之取足無心於勢利也又矣然非以隱自居也故歲至京都訪舊故縱飲談笑往來途中羸僮瘦馬堅鞭吟詩而白鬢如雪紅頰浮光使善畫者傳其神未必讓三峯蓮葉圖矣南谷山可採水可釣足以無求於世而自足也而山明水綠境幽人寂舉目悠然雖曰神遊八極之表亦不爲過矣宜先生有以自樂於是也予之衰病又矣每欲歸去來而未果也有田而近於海有廬而薄於田思得兩全而終吾身予之望也而豈可易而致之哉先生之爲正言也僕忝諫大夫同言事忤宰相諸公皆外遷獨穉也叨蒙異擢至今令人愧赧先生屢起位纔至三品然遺愛存於民心華聞字於物望永之李氏寧有儷美焉是必鳴騶入南谷矣異日立大策決大議上贊南面之化如諸葛公起於南陽可必也抑未可必也皆天也先生名釋之先君稼亭公之門生及第也嘗與予同中辛巳進士科云

〈文化院消息〉

日本公民館代表團訪問

지난 9월 17日 本 文化院에 日本公民館代表團 일행 14명이 團長 小高勝 次인솔하에 訪問하였다. 이날 金正根 龍仁文化院長은 文化院의 創設 背景과 各種 文化事業에 對한 現況說明이 있는 후 양측 상호 質疑應答과 간담회를 가졌다.

日本代表團은 文化院 施設을 돌아본 후 12시경 龍仁教育長을 예방하고, 韓國민속촌을 視察하고 오후 16시경 龍仁을 떠났다.



제 3 회 초중교생 피아노경연대회

본 문화원에서는 관내 초중교생을 대상으로 지난 9월 6일 제 3회 피아노 경연대회를 학부모 지도교사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부문별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특 상 (제 4 부)	용동중학교	박 상 미	부상 피아노 1대
금 상 (제 1 부)	서룡국민학교	양 정 숙	
은 상 (제 1 부)	서룡국민학교	조 석 란	
〃 (제 3 부)	용인국민학교	문 지 훈	
〃 (제 1 부)	포곡국민학교	이 선 경	
동 상 (제 1 부)	용인국민학교	김 태 경	
〃 (제 2 부)	용인국민학교	인 운 영	
〃 (제 3 부)	용인국민학교	김 은 혜	
〃 (제 3 부)	서룡국민학교	박 연 주	



제 3 회 중 고 생 영 어 회 화 대 회

용인문화원 주최로 지난 9월 13일 문화원관내 9개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말하기대회를 지도교사 학생 학부모 문화원임원 문예진흥위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외국어대학 어문학 심재일 박사와 이용호 교수 통
역대학원의 미국인 Werk Pstricis 교수가 심사를 담당하였다.

이날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중 등 부		고 등 부	
금 상	용 동 중 학 교	금 상	태 성 고 등 학 교
은 상	용인여자중학교	은 상	용인여자고등학교
동 상	태 성 중 학 교	동 상	용인상업고등학교



“龍丘文化” 인사동정 자료

● 龍仁郡 教育廳 金顯奎 教育長은 1986年 9月 1日字로 第六代 龍仁郡 教育長에 就任.

過去 龍仁郡 教育廳 學務課長을 歷任한 바 있는 金教育長은 官內 教育의 實情을 昭詳히 把握하고 있어, 二千年代를 主導할 훌륭한 人材 育成을 위해 모든 教職員의 人和를 바탕으로 “다듬고 精進하는 새 龍仁教育”의 基盤을 確固히 하겠다고 굳은 意志를 表明했다.

● 농협중앙회 용인지부에 근무하던 노용득 차장이 '86년 9월 3일자로 신갈지점장으로 영전하였다. 후임으로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김석기 차장이 취임하면서 내고향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보겠다고 밝혔다.

● 龍仁郵遞局 李潤洙 局長이 今般 '86年 7月 16日字로 北仁川 郵遞局으로 전보 발령되고, 新任 李光敦 局長은 1955年 以來 30여년을 오로지 遞信業務에만 俸職하여 왔으며, 龍仁郵遞局長으로 就任하기 前에는 金村郵遞局長으로 수년간 俸職하였다.

李局長은 독실한 기독교신자로서 빈틈없는 行政과 奉仕하는 行政을 公職의 信條로 삼고 있다.

원 고 모 집

본 문화원에서 계간지로 발간되는 「용구문화」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 요령에 의거 군민 여러분의 원고를 수시 모집하고 있으니 주옥같은 글을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속놀이, 문화재 등 발굴기(원고매수 자유)
- 애향심 고취에 관한 산문(원고 12매)
- 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논문
- 각 기관 및 학교, 일반사회단체 등의 동정소식(원고매수 자유)
- 수필, 시, 콩트 등

보내주실 곳 :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133-61

용인문화원 <<전화>> 2-2033번

〈表紙說明〉

허계 초상(許稷肖像)

허계의 자(字)는 자길(子吉)이며 조선명종 16년인 가정(嘉靖) 40년(1961) 11월 13일에 태어났다. 관은 의정부(議政府) 좌찬성(左贊成)에 올랐고 양평군(陽平君)에 피봉되었다.

문헌에 의하면 인조 6년(1628) 1월 4일 광해군의 외척이 되는 유효립(柳孝立)이 제천에서 귀양살이를 하면서 정실, 윤치륜 등과 모의하여 인조(仁祖)를 몰아내려는 음모를 꾀하였다. 즉 이들이 대궐을 침거하면 광해조의 옛 신하들이 궁중에서 내응토록하는 계획이었는데 이때 죽산 부사로 있던 허적이 이들의 역모를 알아차려 조정에 고변하였고 허계의 아들 허선 부자는 이들 음모를 절박하는 공을 세웠던 것이다. 이 때가 인조(仁祖) 무진년(戊辰年)이었으므로 이들 공신을 “무진위훈공신”으로 불렀으나 작위는 영사공신(寧社功臣)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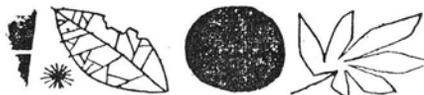
이 초상이 그려졌을 당시 허계는 65才이다. 허계초상 상단에는 승정원년 무진위훈도(崇禎元年戊辰爲勳圖)라는 명문(銘文)이 묵서되어 있는 좌안 7분면의 전신교의좌상(全身交椅坐像)이며 학흉배의 청포단령(靑袍團領)을 입은 공수(拱手)의 취세이다. 조사모(鳥紗帽) 부위가 약간 손상되었을 뿐 양호한 상태이다.

李 應 暖

편집후기

고유의 명절인 팔월한가위를 맞아 온 가족과 함께 고향을 찾는 못사람들의 밝은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고 풍요하다. 오곡백과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龍丘文化 8호를 발간하게 됨은 편집하는 마음마저 풍성하다.

특히 이번 호는 새롭게 각기관 및 학교 사회각층의 폭을 넓혀 수록하였으며, 특집으로 “龍仁은 初期百濟의 古邑이다” 새로운 사실을 엮어 소개하였고, “負兒山과 沸流 그리고 三角點”과 “韓國의 理想的인 선비 十淸軒 金世弼 先生” 등 원고마저 풍성하게 투고하여 주시어 龍丘文化가 날로 발전함을 편집인 모두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였다. 항상 郡民과 같이 하는 龍丘文化를 키워주신데 힘입어 열과 성을 다하여야 되겠다고 다짐하였으며…… 暖



용 구 문 화 제 8 호

1986년 9월 25일 인쇄

1986년 9월 30일 발행

발행처 : 용인문화원

발행인 : 김 정 근

편집인 : 이 응 준

인쇄처 : 흥익문화인쇄사 전화 : 274-6155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부터
일부를 지원받아 발간되었음.

비 매 품

